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보건학석사 학위논문

서울시 중, 고등학교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 맥락과
영향 탐색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조 정 연

서울시 중, 고등학교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 맥락과
영향 탐색

지도교수 유 승 현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조 정 연

조정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위 원 장 _____ 조 병 희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조 성 일 _____ (인)

위 원 _____ 유 승 현 _____ (인)

요약 (국문초록)

서울시 중, 고등학교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 맥락과 영향 탐색

조정연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청소년의 흡연은 성인의 흡연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치명적이고 이후 성인 흡연으로 이어져 평생 흡연자 및 중증흡연자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전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청소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전체 학교에서 흡연예방사업을 운영하여 학생 흡연 예방 및 흡연학생 관리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의 흡연학생 관리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상의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소년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기반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현장의 금연프로그램 운영 맥락과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학교 기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학생 및 진행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생의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자 19명의 프로그램 참여 학생, 4명의 프로그램 진행자를 대상으로 총 6회의 초점집단토의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흡연행태와 프로그램 참여의 맥락 및 영향은 시간에 따른 흡연경험의 변화, 과거의 금연 시도 경험, 참여의 자발성, 자신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금연에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 참여의 편의성,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흡연 학생 관리 요구라는 7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자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식은 참여 학생과의 초기 관계 형성, 참여 학생의 특성 이해, 자율적인 프로그램 내용 구성, 학교의 체계적인 흡연학생 관리 부재, 개선이 필요한 현재의 금연프로그램이라는 5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연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진행자가 공통적으로 학교 기반 금연프로그램에 대해 비자발적인 참여 과정, 금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학교의 흡연 학생 관리행태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학교 기반 금연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연프로그램의 준비 단계부터 종료 후까지 교육청, 학교, 진행자 각 운영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협력을 통해 개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수혜자인 흡연 학생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학교 금연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방안은 학교 금연사업을 담당하는 교육청 및 교사에게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 현장의 흡연학생 관리 및 금연교육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학교 기반, 금연, 청소년, 초점집단토의

학번: 2015-24046

목 차

| | |
|------------------------------------|----|
| 제 1 장 서 론 | 1 |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
| 제 2 절 연구 목적 | 4 |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6 |
| 제 1 절 흡연 청소년 대상 금연프로그램 운영 현황 | 6 |
| 제 2 절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9 |
| 1. 개인적 요인 | 9 |
| 2. 사회·환경적 요인 | 11 |
| 가. 개인 간 차원 | 11 |
| 나. 조직 차원 | 13 |
| 다. 지역사회 차원 | 14 |
| 제 3 절 효과적인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의 특성 | 16 |
| 1. 프로그램 구성 이론 | 17 |
| 2. 내용 | 19 |
| 3. 운영 방식 | 20 |
| 제 3 장 연구 방법 | 23 |
| 제 1 절 연구 설계 | 24 |

| | |
|---|----|
| 제 2 절 자료 수집 | 24 |
| 1.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및 모집 | 24 |
| 가.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학생 | 24 |
| 나.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자 | 25 |
| 2. 초점집단토의(Focus Group Discussion) 진행 절차 | 26 |
| 제 3 절 자료의 분석 | 31 |
| 제 4 절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 32 |
| 제 5 절 연구윤리 | 33 |
| 제 4 장 연구 결과 | 34 |
| 제 1 절 초점집단토의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34 |
| 1.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학생 | 34 |
| 2.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자 | 35 |
| 제 2 절 초점집단토의 결과 | 35 |
| 1. 금연프로그램 참여학생 대상 초점집단토의 분석 결과 | 36 |
| 가. 시간에 따른 흡연경험의 변화 | 38 |
| 나. 과거의 금연 시도 경험 | 42 |
| 다. 참여의 자발성 | 47 |
| 라. 자신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 48 |
| 마. 금연에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 | 51 |
| 바. 참여의 편의성 | 54 |
| 사.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흡연학생 관리 요구 | 57 |
| 2. 금연프로그램 진행자 대상 초점집단토의 분석 결과 | 61 |

| | |
|----------------------------------|--------|
| 가. 참여 학생과의 초기 관계 형성 | 64 |
| 나. 참여 학생의 특성 이해 | 65 |
| 다. 자율적인 프로그램 내용 구성 | 67 |
| 라. 학교의 체계적인 흡연학생 관리 부재 | 72 |
| 마. 개선이 필요한 현재의 금연프로그램 | 74 |
| 제 5 장 논 의 | 79 |
| 제 1 절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 79 |
| 제 2 절 학교 금연프로그램 운영 관련 주요사항 | 86 |
| 1. 금연프로그램 시작 전 | 86 |
| 2. 금연프로그램 진행 중 | 89 |
| 3. 금연프로그램 종료 후 | 90 |
| 제 3 절 연구자 성찰 | 91 |
| 제 4 절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 | 92 |
| 제 6장 결론 | 94 |
| 참고문헌 | 96 |

표 목 차

| | |
|---|----|
| <표 1> 프로그램 참여 학생 대상 초점집단토의 질문지 | 27 |
| <표 2> 프로그램 진행자 대상 초점집단토의 질문지 | 30 |
| <표 3> 초점집단토의 참여 학생의 일반적 특성 | 34 |
| <표 4> 초점집단토의 참여 진행자의 일반적 특성 | 35 |
| <표 5> 참여 학생 대상 초점집단토의 주제 분석 결과 | 36 |
| <표 6> 프로그램 진행자 대상 초점집단토의 주제 분석 결과 | 61 |

그 림 목 차

| | |
|--------------------------|----|
| <그림 1> 연구 설계 | 23 |
| <그림 2> 초점집단토의 프로토콜 | 26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 흡연은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일탈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청소년 지위비행으로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위반행위 중 하나이다(전혜민 & 배성우, 2012). 2017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6.4%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와 비교하여 2017년 청소년들의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12.9세,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13.8세로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청소년들이 여전히 이른 나이부터 흡연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교육부,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7).

우리가 청소년의 흡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청소년의 흡연이 성인의 흡연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이다(CDC, 1999).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담배의 유해 발암물질, 중독성 물질에 노출되면 성장과 발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음주, 약물남용, 폭력과 같은 위험 행태로의 진입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청소년기 흡연은 니코틴 의존도를 높여 금연을 어렵게 만들고 이후 성인 흡연으로 이어져 평생흡연자 및 중증흡연자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 그리고 흡연은 20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본격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CDC, 1999) 현재의 10대, 20대의 흡연율은 2030년대 이후의 흡연 피해 규모를 결정하고(Peto et al., 2000), 청소년들이 고령화되기 시작하는 20~30년 후에는 흡연의 피해가 고령화와 더불어 상승 작용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 따라서 전체 인구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흡연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우리나라 흡연 청소년의 금연 시도율은 69.7%(남자 68.9%, 여자 72.6%)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교육부 등, 2017). 그러나 이처럼 흡연 청소년의 금연의도나 금연시도가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금연 성공률은 낮다는 문제가 있다. 4년간 흡연 청소년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85%의 청소년들이 금연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였고 55%가 금연을 시도했으나 이 중 대다수는 수일 내에 다시 흡연을 하고 1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경우는 15.6%, 1년 이상 완전히 금연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있었다(Zhu, Sun, Billings, Choi, & Malarcher, 1994). Burt와 Peterson(1998)의 학생대상 연구에서도 흡연자 중 67%가 강한 금연 의도를 보였고, 1년 전 금연을 시도한 흡연자 60% 중 21%만이 조사 당시 금연을 하였으며 12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단지 3%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흡연 청소년의 금연 시도가 금연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금연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 흡연 청소년들은 금연 시도 방법이 ‘혼자서’가 61.8%로 가장 많은 반면 ‘교내 금연교육 참여’는 11.0%,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은 4.4%에 불과하고 일부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등(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금연을 위한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흡연 청소년의 금연 성공을 돕는 효과적인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제공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 정책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효과가 기대 되는 것은 학교를 통한 교육이다(박순우, 2009). 왜냐하면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서 직접적인 교육이 제공되므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체계가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교사가 있어 다방면의 교육방법과 수단을 활용할 수 있고 학생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정점도 있다(Sussman, 1995).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사업을 진행

하여 매년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금연선도학교에 일정 예산을 교부하여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262개교(전체학교의 10.9%), 2014년 1,381개교(전체학교의 10%)를 대상으로 금연선도학교를 운영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담뱃값 인상으로 재원이 증가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의 당위성을 확립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에서는 흡연학생 관리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담과 교육을 우선시할 것을 제시한다. 흡연학생은 의무적으로 금연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과정에서 흡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정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금연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읍·면·동 지원 등 여러 가지 정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2012년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END(Experience New Day) 교재를 비롯해 2014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Junior END교재를 배포하여 금연동기유발, 금연실천 프로그램 중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 국가금연지원센터, 2017).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END 교재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대부분의 금연프로그램이 흡연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적 조치의 일환으로 일회성의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그 효과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흡연 학생 관리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고, 담당교사가 있어도 금연교육 및 상담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금연 프로그램 운영에 낮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 내 흡연 청소년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 금연지원 자원인 학생 금연학교, 보건소 이동 금연클리닉 등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이 학교 외부로 나갔을 때 통제가 어렵고, 프로그램 제공자가 학생에 대한 이해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 교사는 외부 금연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서울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이에 학교 보건에서는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을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금연프로그램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흡연학생 대상 금연 지원 부족, 금연프로그램의 낮은 효과 등 흡연학생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흡연학생의 금연실천을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학교 금연 집단상담은 서울시 내 70여개 중, 고등학교에 청소년 금연전문 상담사가 파견되어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담의 대상은 서울시 내 중, 고등학생 중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학생과 학교에서 의뢰한 흡연학생이며 효율적인 집단상담이 이루어지도록 6명 내외의 인원이 총 6회의 상담에 참여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학교 기반의 금연프로그램 운영 맥락을 탐색하고 그것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 고등학생과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를 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참여에 따른 변화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사내용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 기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경로, 흡연행동 특성과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변화,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학교 현장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 맥락과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진행자 간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 공유를 통해 현재 학교 현장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 현황, 진행자들이 인식하는 금연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확인한다.

셋째,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진행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학교 기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흡연 청소년 대상 금연프로그램 운영 현황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은 2014년 9.2%, 2015년 7.8%, 2016년 6.3%에서 2017년 현재 6.4%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0% 이내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교육부 등, 2017).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남자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남학생 흡연율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고 감소 속도는 더딘 경향을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성인 흡연자의 99%는 이미 26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다(CDC, 2012). 청소년기 흡연을 시작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을 기초로 18세 남학생이 55세에 이르렀을 때 흡연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전체 누적 사망자의 13.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65세까지는 21.2%, 75세까지는 27.0%, 85세까지는 28.2%에 이르러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질병부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숙자 & 정영호, 2013). 따라서 흡연과 관련된 질병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흡연문제에 대한 조기개입과 중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2005년 비준을 하여 담배가격 인상, 담배광고·판촉·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고 담배경고 표시 강화, 담배의 불법 거래 방지, 담배회사의 책임 규정, 후진국의 협약 이행을 위한 자원마련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 중 FCTC의 조항 12조는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제고를 통해 국민이 담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초·중·고등학교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WHO, 2010).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998년부터 금연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은 1999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2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였으며 금연 상담,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거나 보건소, 대학교 및 민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보건소에서는 1998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2000년부터는 학교에서 금연상담 및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연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밖에도 2000년부터는 인터넷 온라인(금연길라잡이)을 통한 금연교육이 시행되기도 하였다(이한희, 2007).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는 청소년 대상 금연교육 중에서 청소년의 건강증진 태도와 행동을 개발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은 학교를 통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금연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급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약 10%에서 운영했던 ‘금연선도학교사업’을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재원 증가와 더불어 전국 모든 학교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학교흡연예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금연선도학교 사업이 신청학교 중 선정된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된 반면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사업추진 의지나 역량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가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2015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중학교 75.4%, 고등학교 81.8%의 비교적 많은 학교에서 흡

연학생 대상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 대상 조사에서 현재 흡연자의 금연시도방법은 ‘혼자서’라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고, ‘교내 금연교육 참여’는 11.0%로 나타나 학교의 금연지원 프로그램 참여율이 운영율에 비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학교에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교사의 입장에서도 흡연학생 관리와 금연프로그램 운영은 흡연예방사업 운영 시 어려운 점 중 하나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꼽히기도 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특히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 교사들은 흡연학생 관리를 위해 담당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으나 담당교사의 수 및 전문성 부족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담당 교사들은 외부 강사에게 금연교육을 의뢰하고자 하여도 외부 강사의 낮은 강의수준, 검증되지 않은 전문성 등으로 인해 외부 자원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학교의 금연 환경 조성에도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서울시 94%의 학교가 교내 흡연예방 및 금연규정을 제정하였고 80.3%가 학교 교정 및 환경조성 관련 활동을 높은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그러나 학생 대상 조사 결과 교내·외에서 교직원의 흡연을 목격한 학생이 32.7%에 달해 실제 학생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기존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흡연학생 관리와 이를 위한 금연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흡연 청소년의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금연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 현장의 맥락을 고려한 중재가 개발·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흡연 청소년의 금연을 위한 중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간의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이 남학생일 때, 어머니가 취업모일 때,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때, 비행 행위·음주·친구의 흡연빈도가 많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담배 구매 시 신분확인 강도가 높을수록 흡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개인의 행태적 특성, 사회 인구학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경 외, 2013). 이처럼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되므로(김혜경, 2010) 본 연구도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와 같이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

청소년기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흡연행동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인적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이수연 & 전은명, 2001; 이은현, 전기홍, 송미숙, 이순영, & 김지윤, 2003; 박선훈, 강주희, 전종설, & 오혜정, 2010).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흡연행동 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O'Loughlin, Karp, Koulis, Paradis, & DiFranza, 2009) 흡연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형성하도록 하여 흡연행동에 이르게 만들기도 한다(함진선, 2006) 이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은 특히 여자 청소년의 흡연 가능성을 높이는 양상을 보이는데(전종설, 2014) 실제로 16-17세 여자 청소년 대상 질적 연구에서 50%에 가까운 여자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흡연을 처음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Nichter, Vuckovic, Quintero, & Ritenbaugh, 1997).

청소년의 흡연유발과 관련된 또 다른 개인적 요인은 자기효능감이다. 국내 청소년 흡연유발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적 흡연유발 요인 중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흡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고등학생은 자기 효능감이 약할 경우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정석 & 임사라, 2017). 국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감소할 경우 흡연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Hiemstra, Otten, De Leeuw, Van Schayck, & Engels, 2011).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흡연유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흡연감소나 금연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흡연유혹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Shin, 1997).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김원경(2014)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충동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요인은 성별에 관계없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지만 남자 청소년은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행동, 교사와의 유대, 불안 및 긴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여자 청소년은 경제적 지원이 흡연경험과 흡연행동 여부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종설(2014)의 연구에서는 친구의 흡연이 남녀 청소년 흡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소이지만 남자 청소년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여자청소년은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흡연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내적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외에서도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Clayton(1991)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흡연, 특히 어머니의 흡연과 낮은 부모애착, 부모의 낮은 관심과 감시, 체중조절이 확인되었으며 남학생의 흡연에는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Simons-Morton 등(1999)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의 흡연은 또래의 문제행동, 직접적인 또래압력과 같은 사회적 영향요인과 관련이 있는 반면 학년, 자기통제력은 여학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anchez 등(201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밤에 또래와 주 1회 이상 쇼, 클럽, 주점을 가는 경우 흡연율이 높았다. 여학생도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흡연자와 동거하거나 밤에 친구들과 어울릴 경우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사회·환경적 요인

가. 개인 간 차원

가족의 특성 중 청소년의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는 부모 감독, 애정, 대화요인이 있다(김준호 & 박정선, 1995).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좋지 않은 청소년은 담배와 같은 물질 남용의 고위험 집단이 될 수 있다(Hummel, Shelton, Heron, Moore, & Van den Bree, 2013).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개방, 가족 활동, 부모의 지식 정도는 청소년 자녀가 담배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Jimenez-Iglesias, Moreno, Rivera, & Gargia-Moya, 2013). 이 외에도 부모의 흡연여부 또한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가령 청소년이 부모의 흡연을 목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흡연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거나(Glantz & Jamieson, 2000) 가정 내의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김정환, 박동주, 강병수, & 최형호, 2017)가 그러하다.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의 흡연 유무도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하는 형제가 있으면 청소년들은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Reimers, Pomrehn, Becker, & Lauer, 1990) 흡연청소년들은 대개 가족이나 형제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Huver, Engels, Van Breukelen, & De Vries, 2007; Cheong, 2003; Ko, 1992). 58개의 문헌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도 아동, 청소년에게 있어 형제나 자매의 흡연은 향후 흡연

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족에 의한 흡연 노출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Leonardi-Bee, Jere, Britton, 2011). 그러나 Karcher 등(2005)에 따르면 부모가 흡연을 하더라도 부모와 강력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청소년의 흡연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있으며 청소년 흡연과 가족기능의 관련성에 대한 이휘곤 등(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가족기능의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청소년 흡연이 가족 구조보다는 가족 간 관계와 더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김지은 & 조병희, 2012).

친구 또한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청소년은 함께 하는 또래들의 특성과 관계 속에서 위험행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며 나아가 건강과 관련된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Maxwell, 2002). 이는 친구의 흡연,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청소년의 흡연과 강력한 연관성이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황성현, 2010; 전종설, 2014). 실제로 청소년의 흡연행동은 또래 동조 압력이나 또래 동조 성향에 영향을 받는데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보다는 친구의 영향력이 흡연 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서경현 & 서정열, 2013).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 흡연에 친구가 미치는 영향은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질적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흡연이 또래,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윤순녕 et al., 2008; 김영혜, 김경원, 강미옥, & 김남희, 2010; 한수진 & 송낙길, 2015) 친분형성 및 유지의 의미가 있다(소현진, 2012)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흡연을 하는 또래 집단은 서로에게 흡연을 지속하도록 하는 강화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강압적으로 흡연을 권유하거나 또는 선배들의 강요에 의해 흡연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순녕 등, 2008). 국외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금연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로 친구들 영향, 친구들의 계속된 흡연

권유가 있었으며(Abdullah & Ho, 2006) 금연 시 친구들과의 유흥을 포기하고 따돌림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확인이 되어(Falkin, Fryer, & Mahadeo, 2007) 청소년의 흡연과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의 영향은 알려진 것보다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와 더불어 학교의 교사 또한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독립심이 증가하고 자아를 확립하여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하여 더욱 확대된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학교 기능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원경, 2014). 청소년들에게 교사는 가족이나 친구와 더불어 의미 있는 사회적 지지원 중 하나로 청소년이 교사와 좋은 관계를 가질 경우 흡연 위험성이 낮아지며(강이주 & 김효신, 2005)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관심 정도는 청소년의 흡연 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지경 & 김균희, 2013).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생활도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이수연 & 전은영, 2001) 학업에 대한 흥미, 교사에 대한 신뢰감, 학업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학업성적 등은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awkins, Catalano, & Miller, 1992; Bahr, Marcos, & Maughan, 1998; Manson & Windle, 2001).

나. 조직 차원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학교생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Reimers 등, 1990). 학교는 흡연 등의 약물사용과 같은 청소년 위험행동이나 지역사회 유해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Hawkins 등, 1992; 김신아, 2016). 그러나 학교 내에 흡연교사가 있거나 학교 내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학생의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ointek et al., 2008). 학교의 금연정책도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영

향을 주는데 미국 내 학교의 흡연 제재 조치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학생에 대해 무거운 징계 조치를 취하는 학교가 가벼운 징계 조치를 취하는 학교에 비해 흡연율이나 태도 변화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ogden, 2007). 또한 학교에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흡연 제한 정책이 있을 경우 학생의 흡연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ovato et al., 2010).

교육 또한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의 효과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 결과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은 흡연지식, 흡연태도, 흡연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연프로그램의 중재가 장기적, 반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윤경, 박인혜, & 박정수, 2008). 국내에서 최근 3년간 시행된 총 25편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이 청소년 금연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김혜경, 박지연, 권은주, 최승희, & 조한익, 2013). 국외에서 시행된 연구 중 학교기반 흡연예방 프로그램 49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적용 시 흡연시작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homas, McLellan, & Perera, 2013).

다. 지역사회 차원

청소년 흡연에 대한 성인의 관심,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규제하는 사회제도는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지경 & 김균희, 2013).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흡연 관련 정책은 예방, 규제, 사후정책 중 주로 규제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

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 담배사업법을 근거로 미성년자 대상의 담배판매 및 미성년자의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소년 흡연 관련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 10명 중 7명은 담배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교육부 등, 2016) 규제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반면 최근 시행된 담뱃값 인상정책은 경제적 여력이 낮은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접근성이 낮추기 때문에(Kuntsche, Rehm, & Gmel, 2004) 청소년 금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황준현 & 박순우, 2014)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확인되었다(Kostova, 2013). 담뱃갑 경고그림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에서 흡연율을 낮출 것이라 속단할 수 없으며 청소년은 흡연으로 인한 부정적인 건강 결과를 미래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담뱃갑 경고그림에 노출되더라도 이성적이거나 정서적인 반응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Hornik, Jacobsohn, Orwin, Piesse, & Kelton, 2008). 따라서 청소년들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정서적이고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지각하기 위해서는 반응 효능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김은수 & 정민수, 2017).

청소년의 흡연에는 미디어가 영향을 미친다. 영화 속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캐릭터의 흡연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감정과 흡연의 관계를 학습시켜 자신들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될 때 흡연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최진명, 2009) 영화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담배에 대한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정보를 적절한 여과과정 없이 생애 초기에 획득하게 될 경우 청소년이 담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신성례, 정구철, & 이복근, 2012). 이 외에도 영화, 잡지, 그리고 인터넷과 간판, 판촉물을 포괄하는 담배광고의 목격경험이 청소년들의 현재 흡연과 성인기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등(Choi, 2009) 담배광고가 청소년들의 흡연과 미래 흡연예측에 영향력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신성례, 신선화, & 이복근, 2014). 담배광고에 의해 형성된 흡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는 담배회사

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성인기 금연의도를 불확실하게 만들어 더 나아가 흡연을 유도하게 된다는 결과가 있다(오미영, 2010). 담배광고나 영화 상연 전의 금연홍보는 청소년의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Edwards, Harris, Cook, Bedford, & Zuo, 2004; Hanewinkel, Isensee, Sargent, & Morgenstern, 2010) 국외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Hanewinkel 등, 2011; Gilpin, White, Messer, & Pierce, 2007).

한편 청소년기 흡연행동에는 지역사회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특성 상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또래와 어울리며 지역사회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Aber, Gephart, Brooks-Gumm, & Connell, 1997). 실제로 거주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인구 중 현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흡연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서는 유해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신아 & 한윤선, 2016).

이상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룬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개인 내적 요인 및 사회 환경적 요인과 흡연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흡연 청소년의 금연 중재방향을 제시하는데 머무르고 중재가 시행될 학교 현장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내용 구성과 운영 조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 3 절 효과적인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의 특성

청소년의 금연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인과 차이가 있다. 성인은

건강 위험이나 중독과 같은 내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청소년은 또래의 영향이나 즉각적인 보상등과 같은 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brabtes et al., 2009). 금연 중재에 있어서도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금연을 위한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적용하는데도 제한이 있다. 이는 청소년 대상의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 적용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금연을 위해서는 성인과는 다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은 대부분 학교를 중심으로 지식과 태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일회성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간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로그램 구성 이론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모형에 영향을 받는다(Sussman, Sun, & Dent, 2006). 그러나 모든 연령층의 흡연 중재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한 결과 국내 연구의 과반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혜경 등,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및 행동주의 금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인지행동 기반 금연프로그램이 행동주의 기반 금연프로그램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김명식 & 권정혜, 2006).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된 금연프로그램 22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인지-행동주의 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흡연지식과 흡연태도의 효과를 높였다는 결과가 나왔으며(김윤경 외, 2008),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심리교육, 행동주의 치료, 인지행동치료로 분류하여 적용한 연구에서도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정미경, 2011).

국외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의 적용 이론을 살펴보면 1978년부터 1997년까지

지 미국에서 적용된 65개의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인지행동과 생활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사회적 영향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Hwang, Yeagley, & Petosa, 2004). 1970년부터 2003년 사이에 국외에서 진행된 48개의 청소년 대상 금연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동기강화이론, 인지행동이론, 사회적 영향이론 기반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Sussman 등, 2006). 국외에서 진행된 28개의 금연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이론을 기반으로 동기강화 전략을 쓴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Stanton & Grimshaw, 2013). 반면 학교기반 흡연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국외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모형 또는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영향을 결합한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다른 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램에 비해 장,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이혜진, 2017).

청소년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금연프로그램을 분석한 Stanton 등(2013)의 연구에서는 많은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이 한 가지 이론이 아닌 다수의 이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주요 이론으로는 심리사회 이론, 동기강화 이론, 변화단계모형, 인지행동 이론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들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분석했을 때 변화단계모형과 동기강화 전략, 인지행동치료를 통합했을 때 그 효과가 잘 나타났으며, 특정 한 가지 모형 사용을 권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국내 금연 프로그램을 고찰한 김혜경 등(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은 다요소 중재 프로그램이 금연 결정요인과 금연 실천에 강한 효과성을 보였으며,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금연 결정요인과 금연 실천에 충분한 효과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대체로 인지행동이론이나 사회적 영향이론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이 효과가 높으며, 단 하나의 이론보다는 서로 다른 이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구성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2. 내용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 입원하여 참여하거나, 금연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한 것들로서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이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임은선,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5&6 프로그램’과 ‘5일 교실 금연프로그램’은 국내에서 개발되어 알려진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이다. ‘5&6 프로그램’은 5주 동안 6회가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인식 증진을 통해 흡연행동의 단계를 상승시켜 금연이라는 건강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금연계약서 작성, 니코틴 의존도 분석, 지난 일주일 나누기, 성격유형 검사, 자기분석, 나의 삶의 곡선, 싸이코 드라마, 강의 등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임은선, 2007). ‘5일 교실 금연프로그램’은 하루 2시간 씩 5일간 제공되는 금연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금연결심, 금단증상 극복, 흡연권유 거절, 금연기술 습득 및 자기효능감 증진,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습득하는 것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임은선, 2010).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흡연 청소년들에게 적용한 결과 두 프로그램 모두 청소년의 흡연 자기조절 효능감, 금연행위 변화단계, 흡연손실을 증가시키고 흡연이익, 하루 흡연량, 니코틴 의존도, 소변 코티닌을 감소시키는 등 인지적, 행위적, 생리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은선, 2010). 이 밖에도 최근 각 교육기관에 배포, 활용되는 ‘END’ 금연실천 프로그램은 흡연에 대한 자아인지를 확립하고 금연동기를 제공하는 금연동기 유발 영역과 금연을 준비하고 금연상태 유지를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 금연실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흡연의 폐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흡연력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 흡연에 대한 양가감정 형성, 금연 계획 수립, 재흡연 및 금단증상 대처 방법, 지지 자원 탐색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END’ 금연실천 프로그램의 경우 그 효과를 파악한 연구가 거의 시행되지 않아 객

관적인 효과 판단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해외의 금연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Substance Abuse &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SAMHSA)에서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모델로 지정한 ‘Project EX’가 있다(전종설 & 송인선, 2010). 이 프로그램은 금연 동기 부여, 금연 유지를 위한 대처기술 제공, 금연을 위한 자기노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으며 흡연을 하게 만드는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는 기술, 자기조절 기술을 가르치고 나아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흡연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환경적 폐해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명상, 요가 등의 신체활동, 게임이나 토크쇼 등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Project EX의 효과성 연구에서 통제집단 학생의 8%가 3개월 추적조사 결과 지난 30일 간 금연한 것으로 보고한 반면, 프로그램 참여자는 17%가 금연한 것으로 나타났다(Sussman 등, 2001).

N-O-T(Not On Tobacco)는 SAMHSA의 또 다른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모델 중 하나로 사회 인지 이론을 기반으로 자기 조절 및 자극통제훈련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술, 사회적 영향, 스트레스 관리, 재흡연 방지 전략, 금단증상 및 또래압력 관리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참여자의 성별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프로그램은 추후 6개월에 시행된 사후검사에서 참여자의 22.4%가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을 지속한 청소년의 65.4%는 주중 흡연 횟수가 감소하였고, 75%는 주말 흡연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종설 & 송인선, 2010)

3. 운영 방식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은 이론적 배경과 내용 구성뿐만 아니라 그 운영 방

식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는 참여자 모집과 프로그램 전달방식, 사후관리도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만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Stanton & Grimshaw, 2013).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Sussman 등(2006)은 5회기 이상의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진행할 경우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국내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집단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를 기반으로 주 1회, 5회기 이상, 평균 50분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사후관리가 제공될 경우 효과가 크다고 보고하였다(전종설 & 송인선, 2010). 국내에서 실시된 22편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지식전달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강의식 금연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일주일에 1회 50분간 프로그램이 실시될 때 흡연지식관련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김윤경 등, 2008). 이는 39편의 금연에 관한 실험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교육이 일회기로 실시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적용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화가 이루어질 때 보다 성공적인 금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Kotteke, Battista, Defriese, & Brekke, 1988)와 시사점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 금연과 관련된 질적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금연계기가 성인과 다르고 금연을 위한 방법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재흡연의 유혹이 개인적·집단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흡연에 성공할 경우에는 자신감이 향상되지만 실패할 경우 좌절감으로 금연을 체념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금연의 계기, 금연과정에서의 장애물, 금연방법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한영란, 하은희, 박혜숙, & 이보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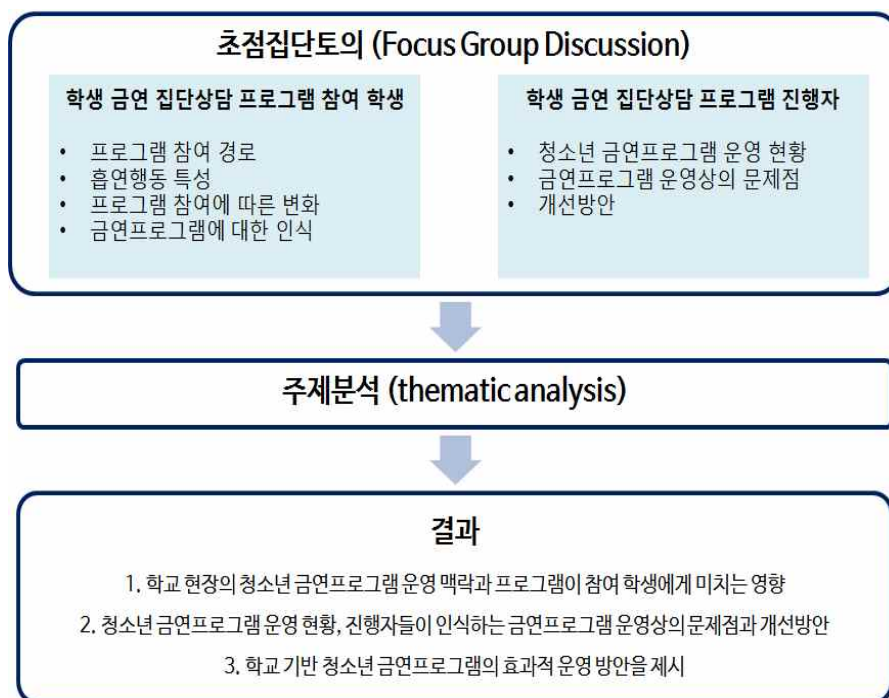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구성요소와 운영방식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나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제공되는 금연프로그램에 대해 이해자인 학생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흡연 청소년 대상 금연프로그램은 대

체로 학교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방식, 시간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보다는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교육 후 흡연학생에 대한 관리도 학교의 재량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 기반 금연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 중, 고등학교의 학생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맥락과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향후 학교 기반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17 서울시교육청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연구사업」에서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수집한 초점집단토의 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 설계

제 2 절 자료 수집

초점집단토의(Focus Group Discussion)는 특정 주제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얻기 위해 관련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선택된 주제에 대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형성해나가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 초점집단토의는 일반적으로 6-8명의 참여자가 한 집단을 구성하여 진행되며 (Krueger & Casey, 2014), 구성원들이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성된 내용은 이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organ & Krueger, 1993).

해당 연구 사업은 ‘서울시 교육청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고등학생과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참여 학생으로부터는 흡연행동 특성, 프로그램 참여과정,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변화를 비롯하여 학교의 흡연학생 관리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고 진행자로부터는 금연 프로그램 및 참여 학생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 개선 및 학교의 협조 방안을 조사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및 모집

가.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학생

학교 기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초점집단토의를 위해 해당 연구사업의 연구진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협조 및 서울시 내 중·고등학교의 동의를 받아 서울시 교육청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 고등학생을 모집하였다. 학생 모집 시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 대리인에게 연구 과정을 설명하고 학생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법정 대리인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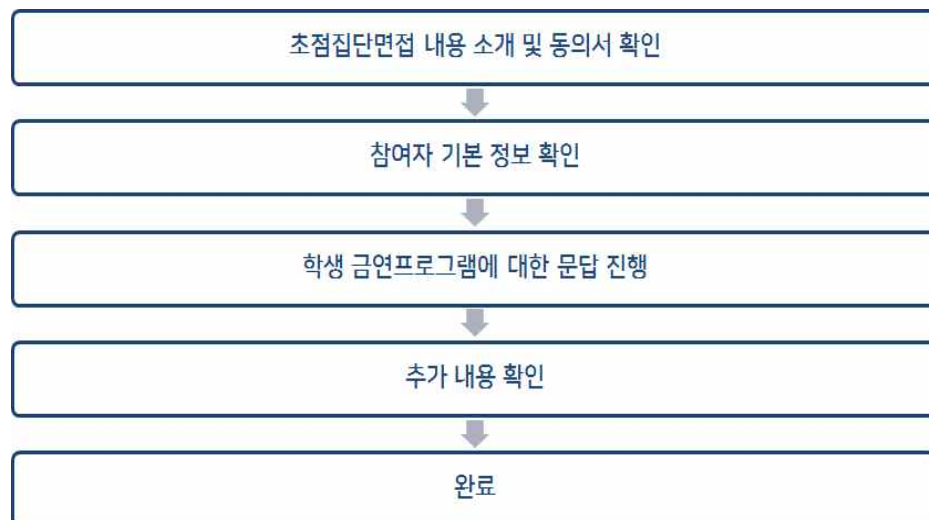
기간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토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진은 초기 총 20명의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이들이 초점집단토의 진행 시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급과 성별을 구분하여 4개의 초점집단을 구성하였다. 각 초점집단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 6인(Group 1), 중학교 3학년 남학생 4인 (Group 2),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6인(Group 3),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4인(Group 4)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집단(Group 1)의 경우 참여 당일 4명이 불참하여 2명만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이후 중학교 2학년 남학생 3명을 추가로 모집(Group 5)하여 초점집단토의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사업의 초점집단토의 연구 참여자는 총 19명이었으며, 각 집단별로 1회씩 약 1시간동안 토의를 진행하였다.

나.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자

학교 기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진행자 대상 초점집단토의를 위해 해당 연구사업의 연구자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 교육청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사를 모집하였다. 모집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상담 경력이 1년 미만이거나 조사기간 중 휴직, 해외체류 등으로 토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총 7명의 상담사 중 4명의 상담사가 모집되었다. 해당 사업의 연구자들은 4명의 상담사로 구성된 1개의 초점집단그룹을 대상으로 총 1회의 초점집단토의를 시행하였으며, 진행시간은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되었다.

2. 초점집단토의(Focus Group Discussion) 진행 절차

서울시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연구진은 모집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림 2>의 프로토콜에 따라 초점집단토의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자 대상 초점집단토의는 연구 목적과 절차 등 초점집단토의 내용을 소개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학생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문답을 진행하였다. 중, 고등학생 대상 초점집단토의는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하되 사전 연락을 통해 학생의 연구 참여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그림 2> 초점집단토의 프로토콜

본격적인 문답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토의 내용은 녹음이 되며 녹음을 원치 않는 내용은 필기로 대체됨을 고지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초점집단토의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토의는 크게 참여 학생 및 진행자의 특성, 금연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질문에 대해 참여자가 모두 정해진 순서대로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먼저 의견을 말하

고자 하는 참여자는 기존의 순서에 관계없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표 1>과 <표 2>는 해당 연구진이 초점집단토의 참여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적힌 질문지이다.

<표 1> 프로그램 참여 학생 대상 초점집단토의 질문지

| | |
|--------------------------------|---|
| <p>과거 또는 현재의 흡연 행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 시작] 언제 처음으로 흡연을 시작했고, 처음 흡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사건은 무엇인가요? ■ [현재 흡연 여부] 현재에도 계속 흡연하고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량] 하루 평균 어느 정도로 담배를 피우고 있나요? • [흡연 타입] 어떤 담배를 피우고 있나요? (일반 쥘런 또는 전자담배 등) ■ [흡연 이유] 나는 ‘왜’ 또는 ‘어떤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나요? (친구, 가정, 학업 등) ■ [학생의 흡연에 대한 인식] 내가 생각하는 흡연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 [흡연에 대한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이 보는 흡연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 [금연 시도 여부] 학교 금연상담 프로그램 참여 전에 금연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금연을 시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 기간은? - 금연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효과는? - 금연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방해가 되었던 것은? - 금연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가 스스로 금연을 시도하는 것보다 금연에 더 도움이 되었나요? |
|--------------------------------|---|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

- [참여 경로와 계기] 어떻게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 [프로그램 내용]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기억이 나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 [다른 프로그램과의 비교] 다른 곳에서 하는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 (있다면) 학교 금연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금연 프로그램의 영향]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얻은 점, 달라진 점(나에게 일어난 변화)은 무엇이었나요?
 - 이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나?
 -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무엇’ 인지?
 - 흡연이나 금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 금연, 흡연 행위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에 변화가 생겼는지?
- [금연 결심 및 실천] 프로그램 참여 후 금연을 결심하거나 실천하였나요?
 - (결심하지 않았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에도 결심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 (결심하였다면)
 - 금연을 결심하는데 함께 참여한 친구나 강사 선생님이 영향을 주었나요?
 - 금연을 결심한 후 실제로 금연을 실천하였나요?
 - (실천하였다면)
 -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금연을 하는 것이 어떠했나요?
 - 계속 실천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 (실천하지 않았다면)
 - 금연을 결심하였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장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 프로그램 내용이나 활동은? 그룹 구성은? - 금연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수업시간에 따로? 그러면 수업을 빠지는데 괜찮은가?) - 금연 프로그램 진행하는 선생님의 대해서는? -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는 어떠했는가? ■ [프로그램의 단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안 좋았거나 바뀌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내용, 활동이면 좋을까? - 진행시간, 장소 등 프로그램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은? ■ [사후관리] 금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괜찮다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 [학교의 역할]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말고 실제 금연을 위해 어떤 도움을 더 주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실제로 금연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
| 향후 흡연 및 금연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 학생의 경우] 나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흡연할 것 입니까? 금연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연 학생의 경우] 나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금연할 것 입니까? |
| 마무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십니까? ■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 입니까? ■ 연구자나 인터뷰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

〈표 2〉 프로그램 진행자 대상 초점집단토의 질문지

| | |
|---------------|--|
| 금연 프로그램 운영 경험 | <p>■ [진행경험] 진행하시는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내용 및 활동 전반: 교육자료, 활동, 진행시간, 특징 등 • 프로그램 운영의 목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p>■ [프로그램 효과] 운영하신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교육내용 또는 운영방식 중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p> <p>■ [진행의 어려움]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관리, 학교 및 교육청과의 협조 등 |
|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 | <p>■ [참여 청소년 특성]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특성은 어떠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급(중학생, 고등학생) 간 차이, 성별(남학생, 여학생) 간 차이, 학생의 참여 및 충실도 등 <p>■ [금연성공 여부] 참여하는 학생들의 금연시도율 또는 금연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시도율이나 성공률이 높은가? 낮은가? •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p>■ [고려사항] 교육 대상이 청소년임을 고려할 때 금연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해야 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이유는?</p> |
| 향후 개선방안 논의 | <p>■ [개선방안]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 교육시간, 장소 • 교육 방법: 내용, 활동 • 교육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필요한 교육 • 사후 관리방안 • 또래, 학부모 및 학교의 지원과 연계 |

마무리

-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십니까?
-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 연구자나 인터뷰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모든 초점집단토의에는 주 진행자 외에 보조 진행자가 동행하였으며, 이들은 주 진행자를 도와 초점집단토의 운영과정 전반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현장 노트를 작성하였다. 토의가 끝난 후에는 주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가 디브리핑(debriefing) 시간을 가지고 토의 내용과 향후 진행될 초점집단토의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초점집단토의 주 진행자는 녹음 내용과 현장노트 내용을 종합하여 녹음 내용을 문서 형태의 파일로 전사하였다. 전사 과정이 끝난 후 주 진행자는 다시 녹음 내용과 전사본을 비교하여 비언어적 표현 추가 및 오타 수정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전사파일을 완성하였다.

제 3 절 자료의 분석

학교 기반 금연 프로그램의 운영 맥락과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2017 서울시교육청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연구사업」에서 실시한 초점집단토의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 연구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초점집단토의 자료의 경우 연구자는 첫 번째 단계에서 녹음된 토의조사의 내용을 전자문서로 전사하여 5개의 전사본을 완성한 후 이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프로그램 운영 맥락과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흡연행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의 효과 및 영향과 관련 있는 모든 단어, 문장, 절에 대해 명명하는 최초 코딩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78개의 코드가 생성되었으나 도출된 코드 중 서로 의미가 비슷한 코드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166개의 코드가 도출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코드 간의 비교, 대조를 통해 연관성 있는 코드를 묶어 범주화하여 총 57개의 하위범주와 21개의 범주로 코드들을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21개의 범주들을 공통된 속성끼리 묶어서 7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7개의 주제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도출된 각각의 주제와 범주 및 하위범주, 코드 간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출된 주제가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지 여부를 초점집단토의 전사본을 다시 확인하며 비교분석하였다.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토의 자료 또한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동일한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쳤다. 프로그램 진행자의 초점집단토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23개의 코드가 생성되었으며 이를 41개의 하위범주, 16개의 범주로 구조화하였으며 이를 동일한 속성에 따라 묶어 5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제 4 절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초점집단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주관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질적 연구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풍부한 보건학 교수 1인의 검수를 받았다. 초점집단 연구의 일반 원칙에 따라(Sandelowski, 1986)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된 토의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결과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제 5 절 연구 윤리

본 연구는 2017년 8월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 (IRB No. 1708/001-019) 을 받은 연구 과제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의 연구 주제에 맞게 재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심의 면제 신청을 하여 2017년 11월 최종 승인(IRB No. E1711/003-009)을 받았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초점집단토의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학생

본 연구의 초점집단토의에 참여한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총 19명으로, 참여 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총 19명의 참여 학생 중 남학생은 15명, 여학생은 4명이었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교 2학년 5명, 중학교 3학년 4명, 고등학교 1학년 6명, 고등학교 2학년 4명이었다. 처음 흡연 경험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 4명, 중학교 1학년 7명, 중학교 2학년 5명, 중학교 3학년 2명, 고등학교 1학년 1명이었으며, 이들의 총 흡연 기간은 1년 미만 6명, 1년 이상 2년 미만 6명, 2년 이상 3년 미만 7명이었다.

<표 3> 초점집단토의 참여 학생의 일반적 특성

| 특성 | | 명 | % |
|----------------|-------------|----|------|
| 성별 | 남 | 15 | 78.9 |
| | 여 | 4 | 21.1 |
| 학년 | 중2 | 5 | 26.3 |
| | 중3 | 4 | 21.1 |
| | 고1 | 6 | 31.6 |
| | 고2 | 4 | 21.1 |
| | 초6 | 4 | 21.1 |
| 처음 흡연 경험 시기 | 중1 | 7 | 36.8 |
| | 중2 | 5 | 26.3 |
| | 중3 | 2 | 10.5 |
| | 고1 | 1 | 5.3 |
| | 초6 | 4 | 21.1 |
| 흡연기간 | 1년 미만 | 6 | 31.6 |
| | 1년 이상 2년 미만 | 6 | 31.6 |
| | 2년 이상 3년 미만 | 7 | 36.8 |

2.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자

본 연구의 초점집단토의에 참여한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자는 총 4명으로, 진행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총 4명의 진행자 중 남자는 1명, 여자는 3명이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30~39세 2명, 50~59세 2명이었다. 학생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2017년부터 운영됨에 따라 4명이 진행자 모두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력은 1년 미만으로 같았다. 이들에게 배정된 중, 고등학교 수는 진행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 10.8개의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4> 초점집단토의 참여 진행자의 일반적 특성

| 진행자(진행자) | 연령 | 성별 | 학교 배정 현황 (수) | |
|----------|-----|----|--------------|------|
| | | | 중학교 | 고등학교 |
| A | 50대 | 여 | 3 | 4 |
| B | 30대 | 여 | 7 | 3 |
| C | 50대 | 여 | 6 | 5 |
| D | 30대 | 남 | 6 | 9 |

제 2 절 초점집단토의 결과

본 연구는 학교 금연프로그램의 운영맥락과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 및 금연프로그램 진행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토의를 실시하였다. 초점집단토의 분석 결과는 학생 집단과 진행자 집단별로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학교 금연 프로그램 운영맥락과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대상자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금연프로그램 참여 학생 대상 초점집단토의 분석 결과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학생 대상 초점집단토의 자료의 주제 분석 결과 참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의 금연 프로그램 운영 맥락과 영향은 시간에 따른 흡연경험의 변화, 과거의 금연 시도 경험, 참여의 자발성, 자신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금연에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 참여의 편의성,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흡연학생 관리 요구의 7개 주제로 도출되었다.

〈표 5〉 참여 학생 대상 초점집단토의 주제 분석 결과

| Theme | Category | Subcategory |
|-----------------|-----------------------------|-----------------------------|
| 시간에 따른 흡연경험의 변화 | 흡연을 시작함 | 흡연에 대한 호기심 |
| | | 흡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
| | | 친교를 위한 흡연 |
| | | 담배나 흡연에 노출됨 |
| | | 타인의 권유나 강요에 의한 흡연 |
| | 흡연을 지속함 | 흡연에 따른 긍정적 경험 |
| |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흡연 |
| | 흡연 지속에 따라 담배 관련 행동과 태도가 변화함 | 신종 담배를 시도 |
| | | 습관화된 흡연으로 흡연량이 증가하고 담배에 중독됨 |
| | | 신체적 폐해 경험 |
| | | 청소년 흡연과 범죄의 연관성 인지 |
| 과거의 금연시도 경험 | 스스로 금연을 시도함 | 청소년 신분으로서의 담배 구입 |
| | |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담배를 구함 |
| | | 청소년 담배 구입에 대한 상반된 감정 |
| | | 담배를 구할 수 없어 하게 되는 금연 |
| | | 금연에 따른 이득이 있음 |
| | | 흡연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함 |

| | | |
|---------------------|--------------------|---------------------------------|
| | | 가족의 금연 권유나 압박 |
| | | 신체적 폐해에 대한 두려움 |
| | 강제적으로 금연을 시도함 | 징계로서의 금연 |
| | | 금연 효과가 없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외부강사 교육 |
| | 금연에 실패함 | 개인의 의지 부족 |
| | |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또래집단 |
| | | 음주 |
| | | 금연 자신감 |
| | 금단 증상의 극복 | 금단증상 경험과 극복방법 |
| | | 금연 보조제 요구와 시도 |
| 참여의 자발성 | 비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 | 교사의 프로그램 참여 권유나 강요 |
| | | 흡연 적발에 따른 징계수단 |
| |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 |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
| | | 참여에 따른 보상에 관심 |
| | | 친구의 참여에 따른 결정 |
| 자신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 금연 동기 유발과 금연 실천 |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 동기가 생김 |
| | |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을 시도함 |
| | | 자신의 금연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 |
| | 상담에 대한 만족감 | 상담을 통한 긍정적 경험 |
| | | 상담사에 대한 호의적 태도 |
| 금연에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 | 금연효과가 없는 프로그램 | 금연과 무관한 내용 구성 |
| | | 금연 동기 형성이 안됨 |
| | | 흡연 지속 가능성 |
| | | 성인기 금연에 대한 막연한 기대 |

| | | |
|------------------------|-------------------------|------------------------------|
| | 심리적 불편감 | 상담에 따른 불쾌감 |
| 참여의 편의성 | 장소에 대한 선호 | 넓고 쾌적하며 조용한 장소 선호 |
| | | 교내 진행 프로그램 선호 |
| | 운영시간에 대한 선호 | 수업 결손에 따른 아쉬움 |
| | | 일과 중 운영에 대한 선호 |
| | | 방과 후 운영 선호 |
| | 운영기간과 집단구성에 대한 선호 | 운영 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 |
| | | 집단구성 시 인원수와 학년 고려가 필요 |
| |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비밀유지 | 학교가 자신의 금연프로그램 참여를 모름 |
| | | 학교, 친구가 자신의 금연프로그램 참여를 알고 있음 |
| | | 금연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비밀유지를 원함 |
|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흡연학생 관리 요구 | 학교의 체계적인지 못한 흡연학생 관리 현황 | 징계 위주의 흡연학생 관리 |
| | | 학교의 불철저한 흡연학생 관리 |
| | | 교사의 부정적 태도 |
| | 동기유발과 추후관리의 필요성 |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 |
| | | 금연동기 유발이 필요 |
| | 학교의 지속적인 관심 |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 |

가. 시간에 따른 흡연경험의 변화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학생 대상 초점집단토의 결과 학생들은 흡연을 처음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흡연을 경험하였다. 이들이 처음 흡연을 시작하는 계기는 대부분 흡연에 대한 호

기심 때문이었다. 담배 그 자체, 담배의 맛과 향, 흡연했을 때의 느낌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부터 청소년에게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호기심은 학생들로 하여금 흡연을 시작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과거에 잠깐 맛 본 담배가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생각이 나고 궁금하여 다시 흡연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흡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데에는 처음 흡연을 시도하기 전부터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의 흡연을 자주 접하거나 길거리에 떨어져있는 담배꽂초, 담뱃갑을 목격하는 등 담배나 흡연 장면이 노출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흡연 장면이 노출되는 경험은 흡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시켜 흡연을 시작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또래와의 친교를 위해 흡연을 시작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흡연하는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 친구를 따라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또래 집단 내에서 자신만 흡연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소외당하기 싫어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흡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은 스스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타인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 흡연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가령 친구나 선배가 흡연을 권유하거나 억지로 입에 담배를 물려서 흡연을 시작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때 학생들은 타인의 흡연 권유나 강요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 3때 친구가 피우고 있는데 호기심에 같이 피웠어요.” (고2, 여)

“왜 애들은 피우지 마라 하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중3, 남)

“뭐, 거절 할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안 한다고는 했는데. 그냥 그게 너무 맛있게 피우길래.” (고1, 남)

흡연을 시작한 학생들은 흡연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흡연을 지속하였다. 학생들은 흡연 행위가 재미있다고 느끼거나, 흡연 시 머리가 핑도는 것과 같은 어지러운 느낌을 즐기기 위해, 또는 흡연할 때의 기분 좋은

느낌을 계속 즐기기 위해 흡연을 지속하였다. 이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흡연을 지속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흡연을 하면 그 순간만큼은 흡연에 집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고 안정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흡연은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며, 흡연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거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흡연을 지속하였다.

“아, 한 번 하니까 이게 약간 재미있다 해야 되나? 뭐.” (중3, 남)

“담배 피우는 동안은 잠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스트레스까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중2, 남)

흡연행위가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담배 관련 행동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그 중 흡연 학생들이 인지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흡연량 증가와 습관화 및 담배 중독이었다. 흡연이 지속될수록 학생들은 아침 기상 후, 식사 후, 방과 후,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할 때처럼 일정한 시간에 담배가 생각나는 조건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학생들은 이를 흡연이 습관화 된 상태라고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을 때처럼 흡연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흡연 욕구가 발생하거나 흡연량이 너무 많은 것은 자신이 담배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흡연을 조절할 수 없고 금연이 어려워지자 흡연을 시작한 것 자체를 후회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흡연을 지속하면서 신체적 이상 증상을 체감하기도 했는데 그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운동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학생들은 구내염, 각혈, 흉부 통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여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학생들 중 일부는 가향담배, 전자담배, 궤련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신종담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지 못했으나 신종담배 또한 일반담배처럼 인체에 유해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일부 학생들은 담뱃값 마련을 위해 주변 친구들을 대상으로 금품 갈취, 절도를 하거나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는데 학생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청소년 흡연이 범죄와 연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저 약간 습관적으로. 그냥 맨날 피울 때 피우고.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 점심 먹고 하나, 학교 끝나고 하나, 심심할 때 하나. 약간 습관적으로.” (중3, 남)

“뭐, 왜 담배 피우는지 후회도 했었는데. 음...그, 막, 어른처럼 습관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제 자신이.” (중2, 남)

“그,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피 나와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후두염 그런 거 걸려서.” (고2, 여)

“흡연하면 막, 나중에 이제 돈이 없을 때는 담배도 훔치고, 오토바이도 타고, 오토바이도 훔치고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중3, 남)

금연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청소년 신분으로 담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나타냈다. 흡연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담배를 구입하거나 친구, 선배 등 타인을 통해 비교적 쉽게 담배를 구입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인터넷이나 시중 판매점을 통해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 담배를 구입하여 피워본 경험이 있었다. 이처럼 담배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는 것이 옳지 않은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가 해당 담배 판매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성인만 구입이 가능한 담배를 청소년인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스릴을 느끼는 등 같은 흡연 청소년임에도 담배구입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참여 학생 중에는 자신의 담배 구입으로 인해 해당 판매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어 폐업하는 것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이 경우 학생은 업주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가지기 보다는 해당 업소가 없어져서 더 이상 자신이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슬픔이나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저 때문에 가게가 벌금을 내야 되고 피해가 가서, 저 하나 때문에 피해를 본 거니까 되게 좀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그리고 빨리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았어요.” (중2, 남)

“약간, 사면 스릴을 느낀다 해야 되나? 좀, 약간 그게 있어요. 어른들만 사는 걸 사니까.” (중3, 남)

나. 과거의 금연 시도 경험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대다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개별적으로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과거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금연을 시도하였다. 스스로 금연을 시도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담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연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친구나 선배로부터 담배를 구하기 힘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흡연을 하지 않다가 평일에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시 흡연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담배를 구입할 돈이 없을 경우 금연을 시도했다가 돈이 생기면 다시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담배를 구할 수 없는 수 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금연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학생들은 흡연의 폐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금연의 이득에 따른 기대로 금연을 시도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흡연으로 인한 운동능력 감소, 호흡기 질환과 같은 신체적 폐해를 직접 경험하면서 금연을 결심하거나 직접 신체적 폐해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폐해가 우려될 때 금연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특히 후두암 환자를 직접 목격하거나 사진을 보고 후두암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 금연을 시도하는 등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 중 유독 후두암에 대한 공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질병의 특성상 후두암이나 후두암 치료를 위한 수술 결과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많고 충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흡연하는 학생들은 금연에 따른 이득이 예상될 때 금연을 시도하기도 했다. 가령 주변의 지인이 금연에 따른 보상을 제안하거나, 담배 구입 비용을 아껴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금연을 시도하였다.

흡연 학생들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후 금연을 결심하거나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코티닌 검사를 통해 흡연을 한 것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또는 흡연이 적발되어 학교 교사나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연을 하였다.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달리 여성의 흡연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을 느낀 후 금연을 결심하는 등 금연에 영향을 주는 타인의 시선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자신이 흡연하는 것을 부모님이 눈치 채거나 의심하는 것이 느껴질 때 또는 가족의 직접적인 금연 권유가 있을 때 금연을 시도하였다.

“그냥 담배가 없을 때 (금연) 하고요. 주말에 2-3일 정도 막 한 적은 있는데, 평일 되고 애들 만나고 그러면 담배가 생기잖아요.” (중2, 남)

“중1때 담배 피우는데 아는 누나가 한 달 동안 (금연)하면, 그 때 여름이어서 팔 빙수 사준다 했는데...(중략)...한 달 하다가 일 년이, 일 년이 됐어요.” (고1, 남)

“제가 이제 마트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저씨가 뒤에 줄 서 있었어요, 계산 하려고. 근데 아저씨가 여기(목) 뭐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저씨가 막 손가락질만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그런 검은색 무슨 마이크 같은 걸 꺼내더니 목에다 대고 말하는 거 보고. 그걸 알아보니까 후두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무서워가지고 3일 정도 끊은 적 있어요.” (중3, 남)

“저 오빠 있는데. 오빠가 여자 친구한테 담배 피우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그 때 ‘담배 피우는 여자 만나지 마라’ 이런 말을 들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맞는 말인 거 같기도 하고.” (고2, 여)

흡연 학생들은 강제적으로 금연을 시도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학교에서

실시한 흡연 검사에서 적발된 후 징계를 받기 위해 강제적으로 보건소 금연 클리닉 또는 외부강사 교육에 참여하며 금연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학교 외부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에 강제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은 교육 효과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대해 설문지 작성 또는 흡연 여부 검사만 하거나 금연 성공 시 보상만 제시한다고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 방문 시 보건소 금연상담사가 강압적인 태도로 금연을 시킨다고 생각하는 등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외부 강사에 의한 금연교육 또한 금연과 관련이 없는 검사나 상담을 실시하기 때문에 금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걸려가지고, 걸려서 6개월인가 7개월 강제적으로 금연했어요.” (고1, 남)

“보건소는 별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막 끊으라고 하니까. 그냥 막 끊으라고 하면은 더 막 피우고 싶어지는데.” (고1, 남)

이미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고 흡연을 지속하다가 본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과거 금연을 시도할 때 자신의 금연 결심을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기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등 말로만 금연을 하거나, 금연을 하겠다고 결심은 했으나 흡연 욕구를 참지 못하고 흡연하며 금연 실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이전의 금연 실패 경험을 통해 금연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금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등 금연 실패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막상 금연하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날 계속 피우고 싶어지고 그래가지고 못하겠어요.” (중2, 남)

“근데 금연하면 남이 뭐라고 하던 간에 자기 의지로 하는 거니까.” (고2, 여)

개인의 의지부족 외에 학생들이 인식하는 금연 실패의 주된 요인은 또래 집단이었다. 학생들은 흡연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흡연을 생각하였고 흡연을 권유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거절하지 않고 함께 흡연을 하면서 흡연량이 증가하였다. 게다가 흡연자 친구들은 일부러 금연하는 학생들 앞에서 흡연을 하여 금연하는 학생들의 흡연욕구를 불러일으키거나 금연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등 금연 실천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또래 집단은 직접적으로 학생의 금연을 방해하기도 했지만 혼자 금연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또래 집단 내의 분위기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흡연을 지속하게끔 만들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이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흡연자 친구들이 자신과 함께 금연하거나 또는 자신과 흡연자 친구들 간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통해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의 특징이 흡연행위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이 안 하면 혼자 하기는 좀 그렇고. 같이 하는 대상이 있어야 담배를 피우니까. 혼자 담배 피우는 건 혼자 밥 먹는 느낌(이예요).” (중2, 남)

“(금연)하려면 지금 놀던 애들이랑 그냥, 아예 그냥 끊어버려야 해요.” (중3, 남)

“술이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담배 같이 피우는 친구들이랑 있다 보니까 항상 그 때는 똑같아가지고” (고1, 남)

흡연 학생 중 일부는 이전 금연 시도 시 흡연욕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거나 금단증상과 같은 힘든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금연 시도 경험을 통해 오히려 금연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언제든 금연을 시도하면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다시 흡연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금연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금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금연 시도를 미루게 만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금연기간 중 음주를 하면서 금연에 실패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성인과 마찬가지로 음주가 흡연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에 한 하루 이들은 많이 생각나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피우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고1, 남)**

“아, (금연할 때) 괜찮다는 걸 느껴가지고 이제 계속 (흡연)하는 거예요.” (중3, 남)

금연을 시도했던 학생들 중 스스로 흡연량이 많다고 인식한 학생들은 금단증상 극복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들은 과거 금연을 시도하면서 금단증상을 경험했는데 증상이 표현되는 방식은 담배 생각에 몰두, 집중력 저하, 불안, 호흡곤란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들은 금연 시 발생하는 흡연욕구를 완화시키고 금단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게임을 하거나, 간식을 먹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흡연 대체 행동들은 금연을 유지시킬 수 있을 만큼 지속되지 않았다. 특히 간식을 먹는 것은 흡연을 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금연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학생은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니코틴 패치는 심호흡하는 느낌, 포만감과 같은 흡연할 때의 느낌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금연 방법으로 계속 활용되지는 않았다. 또한 니코틴 패치는 사용함에 따라 오히려 중독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여 청소년 금연을 위해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가 금연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어 몇몇 학생의 경우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학생은 학교 교사로부터 금연 보조 수단으로 전자담배를 권유받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전자담배 또한 쉼련담배와 마찬가지로 인체에 유해하므로 전자담배가 금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이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이유는 니코틴 함량이 적은 전자담배 사용 시 금연을 시도한다는 느낌을 가짐과 동시에 입으로 흡연하는 행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갑 피우는 것부터 중독이고요. 그리고 끊으려고 했는데 한 3일이면요, 막 손톱 물어뜯고 그래요, 진짜. 3일 참다가 죽을 뻔 했어요. 진짜, 그냥 머릿속에 담배 생각밖에 없어요.” (중3, 남)

“저희 여기 말고 다른 학교에 애가 담배를 끊어 보겠다고 니코틴 패치를 많이 갖다 붙였어요. 근데 담배는 끊었는데 이게 니코틴 패치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니코틴 패치가 없으면 엄청 힘들어해요.” (고1, 남)

다. 참여의 자발성

학생들은 흡연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금연을 시도하였으나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금연에 실패하고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는 참여의 자발성에 따라 크게 비자발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참여로 나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교사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연프로그램에 투입시키거나 또는 교사들로부터 금연프로그램 참여를 강요받아 비자발적으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이미 학교 내외에서의 흡연이 적발된 경험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흡연 적발은 교사가 흡연이 의심되는 학생의 손 냄새를 맡거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지품 검사, 흡연학생에 대한 익명 고발 또는 학생의 학교 밖 흡연에 대한 동네 주민의 신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교사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흡연이 적발된 학생에 대한 징계 수단으로 본 금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흡연 적발로 인한 비자발적인 금연프로그램 참여는 흡연이 적발되지 않은 흡연 학생이 학교 교사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금연프로그램의 참여 기회조차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저는 솔직히 이런 프로그램 있는지도 몰랐는데, 담임선생님이 그냥 ‘있으니까 하라’고 그 명단에 이름을 넣어 놔가지고.” (고1, 남)

“그냥 학교에서 계속 담배 피우고 걸리고 하니까. 네, 다섯 번 걸리니까 선생님들이 ‘하면 좋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했는데.” (중3, 남)

반면, 일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부터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몇몇 학생은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어도 혼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참여를 망설였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 때 친구가 함께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금연에 대한 관심이 있어 참여를 결정한 경우 외에도 단순히 간식이나 상점 부여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를 결심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상은 단순히 학생의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강화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프로그램 참여의 목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학교에서 담배, 담배를 피우다가 걸린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선생님이 금연 클리닉 가라고 함에 따라 저도 이번에 금연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를 해봤어요.” (중2, 남)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연 프로그램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뭐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선생님이 저보고 ‘금연 프로그램 할 거냐?’ 그래서 ‘간식 줘요?’하니까 ‘준다.’ 그래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중3, 남)

라. 자신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는 본 금연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금연 동기가 형성되거나 금연을 실천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금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흡연 생각이나 의도까지도 차단시켜준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금연을 시도한 학생들은 진행자의 금연 권유 또는 진행자와의 금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금연을 시도하였다. 여학생 중 일부는 자신이 금연을 실천하면서 친구에게 금연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금연을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외부 자원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개인의 의지로 금연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금연을 하기 전에 서서히 흡연량을 줄이는 시도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지금 당장 담배를 끊을 수는 없지만 흡연량을 줄여가면서 궁극적으로 금연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가서도 선생님들한테 그런 걸로 좀 불려가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최대한 안 하게 해야죠.” (중3, 남)

“이번 프로그램은 동기부여 하면서 그냥 조금씩 줄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훨씬 더 하기 쉽고 그런 거 같아요.” (고1, 남)

본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금연 동기가 형성되었거나 금연을 실천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금연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특히 흡연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이 왜 흡연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되거나, 금연 실천 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배웠던 것이 유익했다고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담배 속 유해물질과 그로 인한 신체적 폐해에 대한 내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흡연을 지속할 경우 건강이 나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형성하여 금연 동기 유발시켰다. 특히, 실제 타르 모형이나 흡연자의 폐 모형과 같은 시각적 자료는 흡연의 신체적 폐해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퀴즈나 게임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도 많이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차원을 넘어서 활동을 하는 동안 흡연 생각을 잊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었다.

“왜 피우는지, 제가 왜 피우는지에 대해 알게 된 거 같아요. 그 때 약간 습관적인 것도 알게 됐고.” (중3, 남)

“조금 역겨워요. (타르)그런 게 직접 몸에 들어가고, 막상 (흡연)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보니까 되게 좀 싫었어요.” (중2, 남)

“근데 그거(게임) 할 때 이제 약간 담배를 약간 잊게 되는 장점이 있어서.” (중3, 남)

본 학생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상담을 기반으로 금연 교육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금연교육뿐만 아니라 상담활동에 따른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학생들은 상담 후 자기이해와 자존감이 향상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속이 후련해지는 해소감을 경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개별상담을 위해 실시한 심리검사의 결과가 자신의 상황과 일치할 경우 신기함을 느낌과 동시에 검사 결과를 해석해주는 진행자에 대한 신뢰도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심리검사와 함께 시행하는 진로 탐색에 대해서는 금연과 무관하게 자신의 재능을 알고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 향후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금연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유익하다고 인식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는 상담활동이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만족감을 주더라도 금연과 관련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담활동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 학생들은 진행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담활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상담사를 ‘착하다’ 라고 평가하였는데 여기서 ‘착하다’의 의미는 진행자가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학생들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의미하였다.

“제가 음악을 하는데요. 근데 그냥 되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해주시고 하니까. 제가 막 가고 싶은 대학도 되게 그 쪽, 그냥 실용음악과에서 높은 대학인데 거기도 그냥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주시니까 좋았어요.” (고1, 남)

“저는 그, 진로상담 할 때, 그 꿈, 하고 싶은 거, 그게 나왔는데. 담배보다 꿈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아서. 담배 생각은 별로.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고1, 남)

“저희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저희를 상담을 통해 되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 저에 대해 좀 알게 된 거 같아서 좀 좋은 거 같아요. 잘 들어주시니까.” (중2, 남)

마. 금연에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

본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 프로그램이 자신의 금연에 효과가 없었다고 인식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금연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지 않았고 프로그램의 활동 또한 금연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이들 중에는 본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담만 받고 금연교육은 아예 받지 않았다고 인식하거나 금연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힌 학생들이 있었다. 이는 본 금연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모두 상담사로 구성되어 있고 정해진 커리큘럼 없이 각자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금연이랑 상관있던 수업 안 했어요.” (고1, 남)

“금연 그거에 대해서 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고2, 여)

“솔직히 이것(금연프로그램)도 아예 도움이 안됐어요.” (중3, 남)

본 금연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다고 인식한 학생들의 경우 아직 금연에 대한 동기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그 동안 접했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금연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와 같은 신체적 폐해가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금연을 결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흡연이 자신의 신체에 미친 영향과 폐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금연 동기 형성을 위해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흡연과 자신의 연관성을 깨닫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는 막, 암 걸리고 그런 게 막,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몰라서 막, 그렇게 별 느낌은 안 들었어요.” (중2, 남)

“폐가 진짜, 폐암으로 죽은 사람 폐를 갖고 오던가.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중3, 남)

“저는 제 폐 사진 한 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한 걸 알면, 이게 좀 고치려고, 막 끊으려고 하지 않을까.” (고2, 여)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인식한 학생들은 계속 흡연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금연이 담배가 없어져야만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자신이 금연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다. 흡연을 지속하려 했던 학생들 중에는 청소년기 동안에만 흡연을 할 것이라고 말한 학생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주변 어른들도 청소년기 흡연에 대해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었다. 일부 학생은 본 프로그램 참여 시 시청했던 동영상에 등장하는 또래 청소년 또한 금연에 실패하는 것을 예로 들며 청소년기 금연 실패는 자신만의 일이 아니며 청소년이 금연에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계속 흡연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흡연을 하겠다고 언급한 학생들은 금연이 힘들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인이 되면 담배 구입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현재보다 오히려 흡연량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청소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어요.” (중2, 남)

“근데 저는 아마 계속 (담배) 피울 것 같아요, 성인이 되어도.” (고1, 남)

“웬지 스무 살 되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 다니고 여러 친구들 만나게 될 거고. 친해지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그러면 다시 (흡연을) 고려를 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3, 남)

학생들 중 일부는 당장 금연을 할 수는 없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금연이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성인이 되었을 때 금연을 시도하거나 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한 학생들은 성인이 되면 청소년기보다 금연 의지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금연을 방해하는 친구들과 과도 떨어져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한 이들은 성인이 되어 흡연을 지속할 경우 청소년기와는 달리 신체적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하여 금연을 하려고 했다. 이 외에도 성인이 되어 이성친구가 생기거나 결혼을 했을 때, 출산과 육아를 할 때 금연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들의 경우 반대로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어도 금연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또한 금연을 결심하는데 결혼과 출산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애 만약에 낳는다고 치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여자 친구가 하지 마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1, 남)

“아이들 하는 말 들으면 왜, 이, 결혼을 할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 임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그 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애한테 나쁜 그게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성인 되면 뭐, 그런 게 좀 안 좋아가지고.” (고2, 여)

학생들 중에는 금연 교육과 함께 진행되는 상담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진행자들은 학생 파악과 친밀감 형성을 목적으로 성격 및 심리검사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오히려 이와 같은 상담활동이 자신들을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만든다고 인식하였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검사 과정에서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환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상담 중 진행자의 금연 권유를 금연 강요나 잔소리처럼 느껴 상담활동에 대해 오히려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와 같은 진행자의 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반항심을 불러일으켜 더욱 흡연을 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발생시켰으며 상담 시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질문을 많이 하는 진행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다.

“제가 약간, 진짜, 무슨 문제 있어가지고 상담 받으러 온 그런 사람 같았어요.” (고2, 여)

“진짜 심각하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고2, 여)

바. 참여의 편의성

본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학교 일과 시간 중에 진행이 되지만 몇몇 학교의 경우 방과 후에 진행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와 관련하여 각자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있었으며 일과 중 운영 또는 방과 후 운영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

학교 일과 시간 중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프로그램의 방과 후 운영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금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수업을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연프로그램이 수업보다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학교 일과 시간 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반면, 방과 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과 중 프로그램 참여로 수업을 빠짐에 따라 학습 진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오히려 프로그램의 방과 후 운영을 선호하였다. 이들은 방과 후 일정을 위해 프로그램의 시간을 조정해준다면 방과 후에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대한 선호에 관계없이 금연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업결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학생들이 표현하는 아쉬움은 일과 중 운영을 선호하는 학생과 방과 후 운영을 선호하는 학생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방과 후 운영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표현한 아쉬움이 학업에 대한 걱정에서 기인한 학업결손이라면 일과 중 운영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표현한 아쉬움은 자신이 좋아하는 수업 시간 또는 잠을 자도 상관없는 수업시간을 빠지고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한 것이었다.

“하여튼 (일과 중에 하면) 친구들과 같은 진도 따라가기도 힘들고.” (중2, 남)

“시간이, 저희가 월요일마다 5교시, 6교시 그 두 시간 동안 했는데. 하필 2학기 때 월요일 5교시가 체육이어서 한 몇 주 동안 월요일 날 체육을 못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고1, 남)

학생들은 프로그램 운영시간 외에 프로그램 진행 장소에 대한 선호도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내 최신 시설 또는 평소에는 이용하기 힘든 시설, 넓고 탁 트인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만족감을 드러냈다. 일부 학생은 보건실과 같이 학생들의 왕래가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 경우 학생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았으나 다른 교사나 친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이처럼 프로그램 진행 장소에 대해서 학생들은 큰 불만 없이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프로그램 운영 장소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언급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프로그램을 반드시 교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학교 밖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학생들이 외부 기관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귀찮아서 오히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 조건이 되는 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연프로그램이 학교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회의실도 방과 후에는 비니까. 그런 데서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중2, 남)

“근데 막 땀 데서, 막 보건소까지 가야 되면 귀찮으니까 안 가게 될 것 같고.” (중3, 남)

“학교 시설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기가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동아리 하는 곳이거든요.” (고1, 남)

학생들은 프로그램 운영기간과 집단 구성에 대해서도 선호가 있었다. 많은 학생들은 매주 1차시씩 총 6차시로 운영되는 현재의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짧다고 생각했다. 현재의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금연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기간이 축소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금연프로그램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진행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금연 여부를 관리해주기를 희망하였다.

학생들은 집단 구성에 대해서는 큰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언급한 집단구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집단 구성 시 구성원들의 학년 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집단을 구성하는 학생들의 학년이 섞이는 것에 대해 매우 큰 거부감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상급생이 있을 경우 그들로부터 흡연 압력을 받아 흡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외에도 집단 구성원의 수가 더 적으면 진행자와 학생 간에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금연 하고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금연 성공하고도.” (고1, 남)

“그냥 여러 명에서 모아 놓고 ‘담배는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와 닿진 않잖아요. 멍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좀 적은 인원에서 하면 좀, 이렇게 집중하지 않을까.” (고2, 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금연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학교 교사나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 대부분은 담임교사나 그 외 교사, 주변 친구들이 자신의 흡연 또는 금연프로그램 참여를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흡연 여부나 금연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그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는 흡연 학생들에게 주로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교현장에서 자신이 흡연자라는 것이 교사들에게 알려져 낙인이 찍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실제로 학생의 금연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비밀로 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실제로는 학생의 참여 여부가 학교 교사와 친구들에게 알려져 당황스러워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생활지도부 선생님들 다 거의 알고 계셨어요.” (중2, 남)

“보건실 선생님이랑, 저희 그 교과 그 때 시간 선생님이랑, 저희 담임쌤은 알고 계셨죠.” (고1, 남)

“쌤한테는 비밀로 하는 게 좋죠.” (고2, 여)

사.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흡연학생 관리 요구

대부분의 금연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학교가 흡연학생을 관리하는 방식이 흡연여부 적발과 징계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대부분의 학교는 흡연학생이 적발하고 체벌, 벌점, 교내봉사, 외부강사 교육과 같은 형식으로 징계를 하며 적발 횟수에 따라 징계의 수위를 높여 최종적으로 사회봉사나 정학 등의 징계를 내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흡연이 적발된 학생들은 교내봉사 차원에서 청소를 하거나 사회봉사 차원에서 특별교육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징계의 내용은 금연과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흡연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을 제공하고 있어 흡연할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학교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느껴지게 하여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학교는 흡연이 적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산과 같은 자체 활동에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을 신체적으로 지치게 하여 흡연이 더욱 생각나게 만들고 흡연학생들끼리 모이는 기회가 되어 흡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렇듯 학교에서 징계 위주의 흡연학생 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학생들은 금연을 시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흡연 적발을 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

각했다. 본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도 흡연 적발로 인해 참여가 결정된 경우가 많았는데, 학생들은 자신의 흡연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만 흡연을 하거나 또는 비흡연자 친구의 소변을 가지고 흡연 검사를 받는 등 속임수를 쓰기도 하였다.

“처음에 걸리면 그냥 벌점 받고, 이렇게 니코틴 검사하고 나오면 벌점 좀 받고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뭐 계속 걸리면 또 선도위원회도 가고, 이런 금연 클리닉도 오고.” (중2, 남)

“저 특별교육 갔을 때, 갔을 때 그러니까 뭐, 막 담배 피울 시간도 줬어요. 그리고 자는 시간도 줬고. 영화 보는 시간도 줬고.” (중3, 남)

“학교에서 피우진 않잖아요. 밖에서 피우고. 그냥 학교에서만 안 걸리면 되니까.” (고2, 여)

본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가 흡연 학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가령 학교 교사가 학생과 했던 흡연 검사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흡연 적발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의뢰되었으나 클리닉에 참석하지 않아도 학교 교사가 알지 못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의 불철저한 흡연 학생 관리를 경험하면서 학교의 흡연 학생 관리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 있었다. 이들은 학교가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자신의 금연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없으며 결국에는 징계 위주의 관리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교사 입장에서 흡연학생을 관리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징계만 하고 끝낸다고 생각하는 등 학교나 교사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에 대한 학교 교사의 부정적 태도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은 학교 교사가 흡연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흡연 학생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흡연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만 보고 흡연 학생

또는 금연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는 것에 대해 상처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흡연 학생에 대한 학교 교사의 태도는 흡연학생들로 하여금 불만, 분노의 감정을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징계가 보건소였는데, 그 보건소를 기억 못 하나 봐요. 제 징계를.” (중3, 남)

“그냥 선생님들은 좀 저희를 그냥 무시해요. 담배 피우는 거 가지고.” (고1, 남)

“그냥 피우지 마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징계만 하고. 자기들도 귀찮은 거죠.” (중2, 남)

학생들은 이상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학교의 흡연 학생 관리 방식과 기존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우선 학교의 흡연 학생 관리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 교사가 자신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신뢰를 가져주기를 원하였으며,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연 관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가 중요하지만 높은 강제성을 띤 철저한 관리방식 또한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의 흡연 학생 관리 방식은 학생의 정서적 측면이나 강제적인 통제 중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현재 모든 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금연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대부분은 학교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으로 반응하였다. 특히 중·고등학교는 방송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많았는데 이 경우 방송교육 시간이 자유 시간처럼 되어버리고 학생들이 방송에 집중하지 않아 흡연예방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흡연예방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송수업이 아닌 학급 단위 중심의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금연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흡연의 폐해를 강조하거나 검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금연 교육에서 벗어나 금연 동기를 유발하고 금연 실천을 지지해주는

프로그램을 원했다. 뿐만 아니라 금연 성공 시 학생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금연 실천 의지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흡연 학생의 금연 동기 형성에 중점을 둔 금연교육을 시행하되 학생의 금연 동기 정도에 따라 금연 실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금연 성공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금연프로그램에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막 강제로 계속 검사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 하면서 저희가 직접 금연할 수 있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강제로 계속 하라고 하면 반항심 그런 거라고 해서 계속 더 피우게 되니까.”
(고1, 남)

“뭐 (흡연예방교육) 여러 번 했었는데, 1학년 때도 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똑같은 거라서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그 시간은 자는 시간.” (중2, 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 일부는 자신의 학교가 흡연학생의 금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은 내용은 학교 내 보건 또는 상담교사의 금연 격려나 지지였으며 교사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흡연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금연실천을 격려해준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지에 대한 호감뿐만 아니라 금연을 원할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교사가 있다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교사가 수시로 학생들의 흡연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금연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적당하며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와 교사의 관심정도가 학생들의 금연 동기 형성과 금연 실천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학교의 주기적인 코티닌 검사 또한 흡연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심과 관리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다. 앞서 언급된 흡연 검사가 단순히 학생의 흡연 적발을 위해 일회성으로 시행되는 것과는 달리 이들 학

교는 주기적으로 흡연 검사가 실시하여 학생의 흡연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보건선생님이) 먹을 거 많이 주시고, 막 사탕 같은 거 맨날 사주시거든요. 담배 생각날 때 대신 먹으라고.” (고1, 남)

“가끔씩 저희 반 지나갈 때 들어가서 저희 있으면 담배 끊었냐고 물어보고.” (중2, 남)

2. 금연프로그램 진행자 대상 초점집단토의 분석 결과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자 대상 초점집단토의 자료의 주제 분석 결과 진행자들이 인식하는 학교의 금연 프로그램 운영 맥락과 영향은 참여 학생과의 초기 관계 형성, 참여 학생의 특성 이해, 자율적인 프로그램 내용 구성, 학교의 체계적인 흡연학생 관리 부재, 개선이 필요한 현재의 금연프로그램이라는 5개 주제로 도출되었다.

〈표 6〉 프로그램 진행자 대상 초점집단토의 주제 분석 결과

| Theme | Category | Subcategory |
|-----------------|-----------------------------|---------------------------------|
| 참여 학생과의 초기 관계형성 | 비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기개방 거부 | 흡연적발과 징계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 |
| | | 참여 초기 방어적 태도 |
| | 진행자와의 집단구성원 간의 친밀감 및 공감대 형성 | 프로그램 초반 구성원 간 친밀감 형성에 중점 |
| | | 진행자의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학생과의 공감대 형성 차이 |
| 참여 학생의 특성 이해 | 특정 요인과 청소년 흡연의 관련성 이해 | 또래가 흡연과 금연에 영향을 미침 |
| |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흡연 |

| | | |
|------------------------------|--------------------------|-------------------------------|
| | |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함 |
| | 이해하기 힘든 흡연 심리 | 흡연학생의 심리가 궁금한 진행자 |
| 자율적인 프로그램 내용 구성 | 금연 동기를 강화시킴 | 금연성공보다 금연동기 강화를 목적으로 함 |
| | 상담과 심리검사를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 | 상담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 |
| | | 상담 진행에 필요한 심리검사와 활동 |
| | | 개인상담의 필요성 |
| | 금연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 | 금연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프로그램을 진행함 |
| | | 자신의 흡연상태 파악하기 |
| | | 활동을 통한 자신의 폐활량 체감 |
| | | 감정표현 활동 |
| |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 |
| | | 집단토론활동을 진행함 |
| | | 동영상 시청과 효과의 차이 |
| | 학생 참여방안 강구 | 학생 참여를 높이는 활동 구상 |
| | | 학생의 참여와 노력에 따른 보상 |
| 학교의 체계적인 흡연학생 관리 부재 | 학교의 무성의한 관리 | 프로그램과 참여 학생에 대한 학교 교사의 무관심 |
| | | 흡연학생에 대한 학교 교사의 부정적 인식 |
| | | 적발과 징계 위주 관리 |

| | | |
|---------------------------|-------------------------------------|---------------------------------|
| | 프로그램 종료 후 관리방안 부재 | 프로그램 종료 후 체계적인 추후관리 부재 |
| | | 프로그램 종료 후 추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 |
| | 가정과의 연계 부족 | 가정이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 |
| | | 가정의 참여가 필요 |
| 개선이 필요한 현재의 금연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집단구성 | 많은 집단구성원으로 인한 진행의 어려움 |
| | | 학년을 섞어 집단을 구성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 |
| | | 집단구성원 수의 제한이 필요함 |
| | | 집단 구성 시 성비 조정이 필요함 |
| | 대상자 중심의 금연 프로그램 내용 구성 | 참여의 자발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
| | | 실제적이고 유용한 금연 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함 |
| |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 마련 필요 | 개인상담의 체계의 구체화가 필요 |
| | | 학생 관리방안이 필요 |
| | | 운영 관계자 간의 소통체계 필요 |
| | | 프로그램 운영 관계자의 프로그램 이해가 필요 |
| | 흡연학생 금연을 위한 학교 교사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 | 청소년 흡연과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 |
| | | 학생의 금연 노력을 충분히 인정해주어야 함 |
| | 프로그램 효과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 |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가. 참여 학생과의 초기 관계 형성

프로그램 진행 초반 금연프로그램 진행자들은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참여 학생들이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이 금연에 대한 동기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본 금연 프로그램을 금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징계로 인한 벌점 상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흡연이 적발되어 참여하였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동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징계를 받기 위해 강제적으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프로그램 진행 초반 금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현하거나 권위에 대한 반항심을 강하게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대체로 학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프로그램 진행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흡연력이 학교 교사에게 보고될까 우려하여 자기 개방을 충분히 하지 않는 등 폐쇄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벌칙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지 않나...(중략)... 아, 이게 이렇게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상점을 주는 프로그램의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 (D)

“(학생들이) 신경질이 나요. 내가 여기, 그리고 딴 애들, 피우는 애들 많은데 ‘내가 암전해서, 순해서 왔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갖는 거예요. 성질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든 빠져 나가는데, 진짜 골초들은. 근데 나는 여기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불만이 많은 거예요.” (C)

이러한 참여 학생들의 특성으로 인해 진행자들은 프로그램 초기 학생들과 친밀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첫 회기에 학생과의 라포 형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학생들에게 참여의 강제성보다는 선택받아 참여하게 된 것임을 강조하며 프로그램 참석이 향후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흡연 경험을 공유하도

록 하여 집단 구성원들 간에 친밀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집단 구성원들은 이미 서로 친한 친구 사이인 경우가 많아 진행자만 새로운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

진행자의 흡연경험 유무는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차이를 발생시켰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진행자의 과거 흡연 경험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들은 진행자가 흡연경험이 있을 경우 진행자를 더욱 친근하게 여기고 동질감을 느끼는 반면 흡연경험이 없는 진행자에 대해서는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들의 금연프로그램 교육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아이들이 첫 회에 가면 물어봐요, '선생님 담배 피우시냐고'. 그러면 저는 '안 피웠어', 그러면 '끊으셨냐고'. '아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피웠다' 그러면 애들이 좀 신뢰가 좀 떨어지는 눈빛으로 보는 거죠. '네가 뭘 아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D)

"저도 담배를 피운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자기 경험을 공개를 하면서...(중략)...아이들이 훨씬 더 친근해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덕분에. 그래서 '선생님은 뭐 피웠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피워보니까 뭐 이런 게 안 좋더라', 뭐, '선생님이 이러이러해서 끊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러면 이 때 애들이 막, 막 실제적으로 물어보죠. '선생님은 그럼 뭐 어디가 안 좋았냐', 뭐, '얼마나 피웠더니 뭐 어떻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요." (B)

나. 참여 학생의 특성 이해

진행자들은 흡연 학생의 특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들과 관련이 있었다. 진행자들이 인식하는 참여 학생의 특성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흡연에 대한 또래의 영향이었다. 학생들은 또래의 영향을 받아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흡연 유형 검사 결과를 확인해보아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래 집단은 금연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프로그램 종료 후 후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은 다시 또래 집단 속에서 흡연을 하게 되어 금연에 실패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진행자들이 인식하는 참여 학생들의 또 다른 특징은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이었다. 진행자들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 교사 또한 흡연 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흡연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진행자로 하여금 학생과 교사의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 밖에도 흡연 학생들 중 음주를 하는 학생이 많고 학생이 음주를 할 경우 흡연행위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학생 흡연과 음주가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친구를, 아예 '금연을 하려면 친구 속에서 내가 떨어져 나와서 왕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D)

"아이들이 흡연하는 거를 너무 타당화해요. 공부를 하는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공부, 이거, 어,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2학기 때 나갔는데, 그 아이는 고3이고 이제 취업준비를 하는데 부동산, 그 공부를 하는데 너무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 나이에 그걸 공부하는 애는 특이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부를 꼭 '10월 달에 자격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연을 할 수가 없다, 당연히 피워야 된다' 이걸 터치를 못하겠더라고요." (A)

진행자들은 참여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면서도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기가 힘들어 했다. 진행자들은 이것을 해결되지 않은 호기심이라고 표현하였는데 호기심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학생들보다 부족한 담배경험을 언급하였다. 진행자들은 자신들이 학생들에 비해 담배를 직접 접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흡연 경험 또는 금연 시 겪는 어려움을 잘 알지

못했다. 따라서 진행자들은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담배나 흡연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필요로 했으나 이와 관련된 정보 또는 정보 획득 경로를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거 하면서요. 애들을 좀 더 이해하려면 '나도 흡연을 해 봐야 되나' 하는 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애네들이 어릴 때 그렇게 그게, 도대체 못 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뭐 때문에 못 끊게 하는지를.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 나도 한 번 해봐야 되나." (A)

다. 자율적인 프로그램 내용 구성

진행자 대부분은 참여 학생들의 금연 동기 강화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금연에 성공하는 것보다 금연에 대한 동기를 형성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금연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비자발적,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금연동기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 전부터 이미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금연 동기가 형성되지 않아 금연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진행자들은 학생들이 금연동기를 형성하여 프로그램 종료 시 금연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금연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여 향후 금연을 시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프로그램의 기본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목표는 금연이 아니라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초기부터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5회기부터 선생님처럼 '자, 이제 금연 쪽으로 가보자, 성공 경험을 해보자, 짧든지 길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하고 약속을 하고 '하루라도 끊었어요' 그러면 이제 칭찬 해주고 '대단하다, 힘들었을텐데' 뭐, 그런 걸로

가고. 마지막에 이제 스트레스 푸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편안하고, 아이들도 편안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거 같아요.“ (A)

진행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금연교육을 진행하였다. 일부 진행자들은 상담활동만으로 본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진행자 대부분은 금연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금연프로그램이 흡연 학생의 금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행자들은 END 교재 중 일부를 발췌하거나 END 교재 자체에 비중을 두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금연교육 시 학생들은 금연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알게 될 때 놀라거나 금연 효과를 깨닫기 때문에 진행자들은 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금연에 반복적으로 실패할 경우 자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므로 흡연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려주어 금연 실패에 대해 자책하지 않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금연 실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 목적은 금연이잖아요. 사실은 흡연예방사업이고. 그럼 그 목표는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할까., 계속’. 그럼 또 내년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그 END와 또 새로운 그 동기강화 프로그램, 또 우리 뒤에 또 한 권 받았잖아요. 그걸 이제 같이 접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C)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금연 교육 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였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흡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신이 구입한 담배 사진을 찍어보게 하거나 END 교재의 활동지를 이용하여 흡연일지와 금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지 작성의 경우 학생들이 글을 쓰는 활동을 선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동 자체를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진행자들은 일지 작성 대신 학생들과 흡연 상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활동을 대체하였다.

진행자들은 자신의 흡연상태를 파악하는 활동 외에도 담뱃값 경고그림이 금연에 미치는 영향, 흡연예방 및 금연 만화그리기, 자신의 금연경험 등에 대한 집단토론을 통해 학생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진행자들은 간단한 신체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이 흡연의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풍선이나 종이컵을 활용하여 자신의 폐활량을 알아보거나 흡연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신체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진행자들은 감정카드를 활용한 게임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적합한 단어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흡연을 권유받았을 때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그거 뭐 경험하는 거라고 해서 종이컵 갖고 와가지고 구멍 뚫어놓고 숨 쉬는 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깔끔해보여서 그거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공감에 좀 많이 되나 봐요. 이게 숨 자체가 안 쉬어지니까. '너희도 여기 몇 명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좀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D)

"그러니까 어떤, 교사에 대한 권위적인 거에 대한 반항, 이런 게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애네들이 이 분노를 좀 표출하게 해 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음,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는 뭐, 다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들어서 풍선을 가지고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터뜨리는 거 아니면 발로 차게 족구를 막 했거든요. 풍선 가지고 족구 게임 하고. 이럴 때는, 예, 되게 활발하게 씩씩하게 막 했던 거 같아요." (A)

진행자들은 학생 교육 시 동영상 활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진행 시 활용하도록 제공한 동영상 자료 외에 직접 준비한 영상 자료를 활용하였다. 진행자들은 이러한 동영상 자료가 해외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흡연의 폐해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 학생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라도 학교급에 따라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에는 차이가 있어 진행자들은 교육

용 동영상 선택 시 고민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또래가 등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에 흥미를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동영상 속의 또래가 금연에 실패하는 내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금연실패를 합리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으므로 동영상 자료는 학생들의 또래가 등장하면서도 금연에 성공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동영상 보여 주면은 재미있게 보는 애들도 있어요...(중략)...이제 본인 이야기랑 좀 많이 비슷한 게 좀 나와요. 그러면 또, 그러고 해서 좀 집중해서 보는 것도 있고. 첫 번째 건 너무 외국 이야기들이 많아서 아이들 봐도 좀 공감이 안 되고 좀 극단적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버거씨 병 걸려가지고 팔, 다리 자르는데...(중략)...중간 중간에 이제 영향 보여주고 하면 좀 놀라더라고요.“ (D)

진행자들은 학생들의 프로그램 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들은 비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에서 학생의 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재미나 흥미를 유발하는 퀴즈나 게임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활동을 하기 보다는 하나 또는 두 가지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만약 참여율이 떨어지는 학생이 있다면 진행자가 직접 학생과 함께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진행자들은 학생들의 참여와 노력에 대한 보상도 제공하였다. 이들은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학생들에게 간식과 같은 보상물을 제공하였는데 이 때 제공하는 간식은 학생의 금연 실천 시 활용할 수 있는 군것질거리로 이용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 그 밖에도 진행자들은 학생들과 금연 약속을 정하고 성공할 경우 칭찬과 격려를 해주기도 하였다.

“나 사탕 줘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거, 꼬꼬마한 거 있어요. 큰 통 있잖아요. 150개인가? 그거 사가지고 학교 갈 때마다 한 스무 개씩 봉지에 넣어서 그거를 나눠줘요. 왜냐하면 흡연하는 애들이니까 흡연이 생각날 때 이거, 이 수업 끝나고 너네 담배 피우러 가지 말고, 대부분 방과 후잖아요. 한 번, 한

개피 줄여봐, 뭐 이런, 그 시간. 담배 한 개피 피우는데 1-2분이면 피운다고
그러더라고요.“ (C)

진행자들은 금연 교육뿐만 아니라 심리검사를 활용한 상담활동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시 금연교육과 상담활동의 비중은 진행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상담활동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진행자들은 청소년 흡연이 정서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학생의 정서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들은 상담활동 시 성격검사, 문장완성검사, 진로탐색 등 다양한 검사를 활용하여 흡연 행위와 학생 자신의 관계를 정립하고 흡연의 결과를 장래 희망과 연관시켜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심리검사에 불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상담 활동의 효과가 적을 수 있으므로 일부 진행자들은 심리검사보다는 학생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에 더 집중하였다.

진행자들은 본 프로그램이 집단상담으로 진행되지만 개인상담 또한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본 금연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진행자들에게 END 교재를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END 교재만 사용할 경우 학생들이 프로그램 진행에 잘 따라오지 못하고 진행자는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등 END 교재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이와 같은 END 교재 활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흡연 학생의 금연 동기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진행자들은 청소년 금연 상담은 집단상담보다는 개개인의 성향을 고려한 개인상담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또래 집단 속에서는 자신의 금연의지보다는 흡연력을 더 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개별적 만남 시에는 높은 금연의지를 드러내거나 금연 실천 경험을 자랑하는 등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시 금연에 대한 학생의 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 외에도 진행자들은 개인상담이 진행자와 학생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상담 과정에서 진행자가 학생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으므로 개인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단은 제가 접근하는 거는, 음,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흡연에 접근하는 거에 일단은 정서적인 부분을 굉장히 크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 대상을 찾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좀 좌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A)

“개별상담을 할 때 금연 의지가 좀 높아요. 아이들 물어보면, ‘너 금연 할 거냐’ 그러면 ‘네’. 집단에서 있을 때는 ‘뭐, 금연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섣척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특히 남자 애들은 그러니까 앞, 뒤가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집단에 있을 때는 막 시끄럽다가도 일대일로 만나면 되게 조용한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집단보다는 개별로 상담을 하는 게 금연에 더 맞지 않나.” (D)

라. 학교의 체계적인 흡연학생 관리 부재

진행자들이 생각하는 현재 금연프로그램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흡연 학생에 대한 학교의 무성의한 관리였다. 그 중 하나는 금이었다. 진행자들은 본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담당자의 관심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행자들이 경험한 학교 담당자들은 본 프로그램을 실적 위주로 운영하거나 단순 업무로 취급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학교 담당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진행자들에게 떠넘기듯 맡기거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충분히 지원해주지 않아 진행자들은 프로그램 진행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 밖에도 학교의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거나 바쁜 업무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하여 기본적인 예우조차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진행자들은 서운함을 느꼈다.

진행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 대한 학교 교사의 무관심뿐만 아니라

흡연 학생에 대한 학교 교사의 부정적인 인식도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학교 교사는 대체로 흡연 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이미 교사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주눅이 든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가 학생의 성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흡연 학생을 관리하는 등 일관성 없는 학교 교사의 태도도 문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진행자들은 학교가 흡연학생에 대해 적발과 징계 위주의 관리를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학교에서는 흡연검사를 흡연학생 적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행자들은 이와 같은 관리방식이 학생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흡연 학생들은 흡연 적발을 피하기 위해 비흡연자 친구의 소변을 이용하는 속임수까지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할 때, 모집할 때 저도 그 생각 하는데.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모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학교에서 관심 있고 그 아이들에게 애정이 있을 경우는 그 모집 집단은 성공적이에요.” (C)

“개개인을 신경 써주는 것보단 계속 실적 위주의 무슨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느낌이라서. 저희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똑같이 느낀다 이거죠. 뭐, 어차피 가봤자 이거 금연 하면은 뭐, 하고 또 애들 만나면 담배 피우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D)

진행자들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후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프로그램은 종료 후 관리방안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부 진행자들은 프로그램 종료를 아쉬워하고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는 학생들에게 본인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면서 개별적으로 추후관리를 하기도 했다. 진행자들은 그들에 의해서든 학교 교사에 의해서든 프로그램 종료 후 주기적으로 흡연 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진행자들은 흡연 학생 관리에 있어 가정과의 연계가 부족한 점을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학교의 관리뿐만 아니라 가정의 협조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청소년 흡연의 경우 가족력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은 현재의 금연프로그램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포함을 시킨다 하더라도 생계가 바쁜 학생의 가정환경 때문에 가족을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아이들도 끝날 때 되게 아쉬워하는데, '선생님 또 보려면 내년에도 담배 피워서 걸려야 하겠어요.' 이런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추후관리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B)

"아이의 추적조사를, 차라리 멘토보다는, 우리가 맡았던 아이들을 점검하는 거죠. 2시간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점검, 말 그대로. 한 시간 만나서 다과를 나누면서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니?'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C)

"그게 불가능하면 학교 선생님이라도 정해서 저희가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체크하시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B)

마. 개선이 필요한 현재의 금연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현재 금연프로그램의 내용, 운영, 학교의 협조 사항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특히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학생 집단구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본 금연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 집단을 6명 이내로 구성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흡연학생 의뢰 시 집단 구성원이 6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 경우 학생과 진행자 간 관계형성과 학생 통제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진행자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자들은 프로그램 집단 구성원 수를 6명 이

내의 짝수로 구성하길 원했다. 이들은 집단 구성원의 수가 6명이 넘을 경우에는 보조진행자를 동반하여 10명까지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계속 이야기했던 측면인데, 모집을 이런 형태로 하면 동기 부여가 안돼요. 왜냐하면 그, 왜, 애들 상점 준다 그래가지고 담배 많이 피우는 애들 잡거나, 담배 많이 피우지만 학교에서 걸린 애들만 잡아가지고 다 때려 넣어가지고 '교육을 들어라, 상점을 주니까', '너 벌점 많으니까 상점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들여놓으면 앉아 있다 가는 거죠. 아이들. 그래서 뭐. 그것마저도 안 오는 애들인데." (D)

"저도 효과가, (인원이) 적을수록 좋긴 한 거 같아요. 3-4명 정도가." (B)

진행자들은 집단 구성원의 수 외에도 집단을 구성하는 학년이나 성별 또한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집단 구성 시 여러 학년이 섞여 있을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진행자들은 이 경우 고학년이 저학년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여 저학년들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고학년이 진행자에 대해 무례한 태도를 보여서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경험하였다. 집단 구성 시 성별이 섞이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 시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 진행자는 집단 내 성별이 섞이는 것에 대해 이성 간에 서로 견제 또는 격려 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다만, 한 집단 내에 같은 성별의 학생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만 소수 성별의 학생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애가 바닥에 침을 뱉을 정도였으니까요. 그게 가래, 그러니까 너무 무례해요. 태도 자체가. 그냥 다리도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처음부터 기 싸움을 하는 거죠. 내, 이제, 후배들 앞에서 '내가 이런 애야, 나는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날 건드릴 수 없다'. 그 아이의 배경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집단에서 그런 애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못하잖아요." (C)

진행자들은 현재의 금연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이 대상자 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학생 참여의 자발성 정도에 따라 교육 내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본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금연 동기가 형성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 학생들의 금연 실천을 위해 실제적으로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의 금연 교육은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진행자와 참여 학생 모두를 지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담배나 금연 치료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흡연을 비행보다는 치료의 관점에서 보고 학생들의 금연을 위해 제대로 된 금연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진행자들은 이를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보건소,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금연 프로그램 진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만약 금연 실천 프로그램을 할 거면 진짜 제대로 된 체계적인 걸 좀 해라, 그래서 동영상에 나오듯이 한 명이 와도 막 대학병원 전체 진료 다 받고, 아 이가 뭐가 문제고, 이런 식으로 다 객관적으로 알려주면 아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는 게 뭐, 애들 뭐, 벌칙처럼 와가지고 '너 불어 봐', 그래서 많이 나오면 '소변 검사 해 봐', '너 담배 피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끊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말아 버리니까. 그게 과연 금연 실천인가, 이런 '또 하나의 그렇게 아이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조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D)

진행자들은 현재 금연프로그램 운영에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의 금연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개인 상담을 포함하고 있으나 진행자들은 한정된 시간동안 모든 집단구성원과 개인 상담을 해야 하므로 학생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진행자가 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개인 상담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운영 체계를 구체화하여 개인 상담 대상자 외 나머지 학생

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외에도 금연프로그램 운영 전반에서 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 보다는 학생 관리가 용이한 일과 중 프로그램이 더 좋으며 보조 진행자를 함께 배치한다면 진행자 소진을 막고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진행자들은 앞서 제시한 프로그램 운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학교, 진행자 등 금연프로그램 운영 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마련할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교 담당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매뉴얼이 제공될 필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 금연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진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회기 때는 동영상 보여주고, 저희 개인상담 하는 거 그렇게 진행하는데. 아휴, 그게 동영상이 애들이 집중을 잘 안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별로 협조를 안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다른 걸로 뭔가 대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화 좋아하는 애들은 제가 그, 금연 만화, 그거 갖다 주고, 그냥 보라고 하면 잘 보기는 하는데. 뭐, 진짜 아무 것도 안 하고 자는 애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개인 상담 진행할 때 뭔가 할 게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끼리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 (B)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이제 프로그램이 어찌 되었든 만들어지고 하면 꼭 넣어야 될 게, 이제 담당자 연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교육이나. 그래서 좀 사전에 오티를 좀 진행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반영해서 학교 측, 학교 쪽도 좀 힘든 부분이 많이 빠지고, 저희 쪽도 좀 일하기가 편해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알려주고 이런 이런 대상이나, 뭐 저런 것들을 좀 해서. 프로그램 취지가 이랬으니까 이런 애들 모아 달라고 그러면은 뭐 그 때만이라도 좀 듣는 척이라도 좀 하실 테니까. 그렇

게 해 놓고 들어가면 지금 같은 시행착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D)

진행자들은 흡연 학생의 금연을 위해서는 학교 교사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학교 교사들이 흡연하는 학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반적으로 흡연은 개인의 문제로 취급되는데 이러한 인식은 금연에 실패한 흡연자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만든다. 진행자들은 흡연을 개인 문제로 취급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질병’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진행자들은 흡연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 대상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진행자들은 학생들은 프로그램 종료 시 금연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는 반면 짧은 기간이라도 금연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매우 자랑스러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진행자들은 학교는 흡연 학생의 금연 노력을 인정해주고 금연에 성공했을 때 충분히 축하 해주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흡연하는 애들을 문제아라고 좀 낙인찍기 보다는 좀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 걸 질병이라고 하는 추세잖아요. 약간. 이 아이들도 좀 마음이 아프고 집에서 케어를 잘 받지 못한 자원이 없는 친구들이구나, 이런 인식을 좀 학교에서 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도와주려고 해야지, 문제아라고 치부를 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 담당자부터 선생님들부터 좀 교육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프로그램보다 학교 선생님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B)

마지막으로 진행자들은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의 금연프로그램은 운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높은 만족도가 실제 학생의 금연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금연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단기적인 계획이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공무원 사업이 저도 여러 번 해 봤지만 2-3년 주기로 바뀌어요. 그럼 참 안 좋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좀 이렇게, 특히나 청소년 일은 비자발적인 아이들이고, 미래에 정말 애네들이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좀 멀리서 봐서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성과 위주로 뭘 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일희일비 하지 말고." (C)

제 5 장 논 의

제 1 절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금연프로그램 진행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토의를 진행하여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 맥락과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금연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인식하는 프로그램 운영 맥락과 그 영향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는 시간에 따른 ‘금연경험의 변화’, ‘금연 시도 경험’, ‘참여의 자발성’, ‘프로그램의 유익성’, ‘프로그램의 비효과성’, ‘참여의 편의성’,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흡연학생 관리 요구’로 나타났다. 이 중 ‘금연경험의 변화’, ‘금연 시도 경험’은 참여 학생의 흡연 행태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참여의 자발성’, ‘참여의 편의성’,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흡연학생 관리 요구’는 금연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맥락이 반영되어 도출된 결과였다. 반면 금연프로그램 진행자가 인식하는 학교 금연프로그램 운영맥락과 그 영향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는 ‘진행자와 집단구성원 간의 초기 관계 형성’, ‘참여 학생의 특성 이해’, ‘자율적인 프로그램 내용 구성’, ‘학교의 체계적인 흡연학생 관리 부재’, ‘개

선이 필요한 현재의 금연프로그램'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흡연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겪었던 다양한 흡연 경험과 금연 시도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흡연 학생들의 대부분은 담배 또는 흡연의 느낌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호기심을 형성하는 데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흡연 행위를 목격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또래는 학생들의 흡연 시작뿐만 아니라 금연을 시도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또래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금연을 하지 않고 흡연을 지속하거나 금연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또래의 시선 때문에 계속 흡연을 유지하고 있어 또래가 대체로 학생들의 흡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흡연 행동이 또래 동조 압력이나 또래 동조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는(박순길, 조중열, & 박영호, 2003; Barkin, Smith, & Durant, 2002)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금연프로그램 운영 시 개인적 차원의 접근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흡연하는 또래집단 단위의 중재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흡연을 지속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흡연을 학업이나 대인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진행자들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흡연학생과 학교 교사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흡연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와 같은 인식은 본 금연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쉽게 개선될 수 없는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흡연 청소년이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Bonaguro & Bonaguro, 2009), 청소년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흡연을 한다는(김현옥 & 전미숙, 2007; 박선희 등, 2010) 기존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이 일치한다. 이처럼 선행연구들

이 스트레스를 흡연의 주요 원인으로 밝히고 있으나 스트레스의 양 보다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실제 흡연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회피적 대처방식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송선희, 하은혜, & 송동호, 2002). 따라서 향후 개발될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활동에 집중하기보다는 흡연을 대체하는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 대처 방안 탐색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흡연 학생 대상 초점집단토의 주제 분석 결과 도출된 ‘참여의 자발성’이란 학생들의 금연프로그램 참여 계기와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흡연 학생 대부분은 비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많은 학교가 금연프로그램을 흡연 학생에 대한 징계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발생한 결과였다. 이와 같은 비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는 학생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시작부터 이미 방어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금연프로그램의 목적이 되는 금연동기 및 실천의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금연에 대한 동기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금연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진행자들은 향후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프로그램 시작 단계부터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흡연자의 자발성이나 학교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도 등이 프로그램 효과의 상승작용 요인이라고 밝힌 기존 연구 결과(Yang, 2003)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대체로 공식적인 금연프로그램 참여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을 체계화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어려움이지만 이러한 문제의 극복 없이는 청소년 흡연을 낮출 수 없다(Dalum, Schaalma, & Kok, 2012). 그

러므로 학교 기반 금연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의 금연 동기나 참여의 자발성을 고려하여 모집하되 교육 현장의 특성 상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시작 전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통해 학생의 금연 동기를 유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진행자들이 저마다 운영하는 금연프로그램의 내용과 활동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모든 학교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교육과 관련해서는 일선에서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이나 지침이 없어 교육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신성례 & 정구철, 2007). 이러한 양상은 본 금연프로그램의 진행자들에게서도 나타나 교육청에서 제시한 END 교재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진행자가 있는가 하면 상담 활동만으로 진행하거나 END 교재와 상담 활동을 적절히 조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진행자들이 있었다. 이처럼 진행자들 간의 일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운영방식은 본 금연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도 차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교육부나 교육청과 같은 중앙 수준의 교육 기관은 흡연 학생의 금연 동기 유발과 실천 의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금연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그간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청소년 금연에 효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흡연 청소년의 금연 성공률이 높지 않은 점을 생각해볼 때 향후 개발될 금연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흡연 청소년들은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금연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 수혜자가 되는 흡연 청소년들은 사전 준비 없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신성례, 이충옥, & 정구철, 2013), 교육 제공자 또한 학생 금연 시도의 자발성을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

램을 구성하여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개발되는 금연 프로그램은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흡연 청소년의 금연동기 형성을 위한 상담과 교육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흥미 유발 활동도 포함하여 학생 참여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금연동기가 형성되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연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행자들은 금연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 본 연구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은 프로그램 활동이 대체로 재미있고 활동을 통해 자기 이해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으나 금연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 기반 금연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흥미 위주의 활동으로만 구성되어 진행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수 있으나 본래의 목적인 금연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진행자들은 흡연 학생의 금연 동기 강화와 금연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금연 상담과 금연 교육을 제공하는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Locke(1968)가 성과와 관련된 행동의 가장 직접적인 선행요건이 목표라고 한 것처럼 학교 기반 금연프로그램을 통해 흡연학생의 금연동기를 강화시키고 금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보건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 중에는 SMART로 불리는 목표설정 원칙이 있다. 이에 따르면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특정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성취목표의 양과 질, 그리고 영향력에 있어서 측정 가능해야 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목표가 달성 가능하고 도전 가치가 있어야 하며 결과를 완성할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한다(Milkovich & Boudreau, 1997).

또한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진행자가 청소년 금연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진행자의 전문성

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진행자 스스로 청소년 흡연행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기법과 프로그램 진행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진행자의 노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보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담배 규제를 위한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권고하고 있고 국외에서는 금연 상담사를 위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CAMH(Center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에서 TEACH(Training Enhancement in Applied Cessation Counseling and Health)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이는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금연상담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HPB(Health Promotion Board)에서는 CQSC(Certification for Quit Smoking Consultants)라는 3수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김윤희, 강승희, 김현숙, & 강정찬, 2016).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국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이 시행되어 청소년 금연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 구축이 미비하고 역량이나 직무수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학교 기반 금연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나아가 청소년 전문 금연상담사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토의 주제 분석 결과 도출된 ‘참여의 편의성’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금연프로그램의 운영 조건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운영 시간(일과 중, 방과 후)과 운영 기간, 집단 내 학생 구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이들 중 집단 내 학생 구성과 관련된 사안은 진행자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의 기반 이론, 내용구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연과 신성만(2016)의 연구에서 국내 19개의 청소년 금

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예상하고 계획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대상자 특성과 운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연구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운영 특성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토의 결과 금연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진행자 모두 학교의 흡연학생 관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징계위주의 흡연학생 관리와 흡연학생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인 태도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진행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이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흡연 학생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애그뉴(Agnew)가 제시한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서는 교사의 폭언과 체벌 등은 청소년에 고통을 주는 사건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청소년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분노와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낳아 청소년 비행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문병욱 & 신동준, 2008). 따라서 금연교육 담당 교사는 흡연 학생을 지도, 관리하는데 있어 흡연행위 적발, 징계나 체벌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학생에 대한 격려와 정서적 지지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학교의 흡연학생 관리가 적발과 징계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학교의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학교흡연예방사업이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높아지고 학교의 흡연 학생 관리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학생과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채 학교흡연예방사업 중 한 영역으로 담당 교사에게 업무가 부과되는 현실에서는 흡연학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담당자 1인이 단독으로 학교흡연예방사업을 맡아서 해

야 하는 학교현장의 특성상 학생에 대한 장기간의 심층적 관리는 더더욱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의 흡연상태를 확인하거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단기간 학생을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흡연학생 관리를 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그러나 국내 금연프로그램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단기간의 집중적인 교육은 흡연에 대한 지식을 증기시키기 어려우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한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윤경 등, 2008). 그리고 기존의 금연프로그램을 분석하였을 때 금연을 시도한 대다수가 1년 이내에 재흡연을 하므로 최소한 12개월까지는 추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으므로(Franz et al., 2007; Garrison, Christakis, Ebel, Wiehe, & Rivara, 2003; Hersey et al., 2012) 금연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흡연학생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금연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학교 현장의 업무 구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학교 금연프로그램 운영 관련 주요사항

본 연구는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진행자를 대상으로 학교 기반 금연프로그램의 운영 맥락과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 기반 금연프로그램의 시작 전부터 종료 후까지 일련의 과정에 따른 효과적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금연프로그램 시작 전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운영 관계자 중에서도 특히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

이 중요하다. 현재 중·고등학교는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외부 강사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교육청은 학교에서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 상담사를 선발하여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 대상 초점집단토의에서 일부 학생들은 상담사의 프로그램 진행 태도나 금연과 무관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금연교육 담당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내에서 금연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지 못해 외부 강사에게 의뢰하고자 하여도 외부강사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여 이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김수경, 2017). 건강관련 상담의 수행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상담 능력에 대한 확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Kristina, Thavomcharoensap, Pongcharoensuk, & Prabandari, 2007) 금연프로그램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담사 선발과정에서 그들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초점집단토의 결과 흡연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왔고 강제적인 참여로 인해 폐쇄적 태도나 불만을 가지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학교 교사들도 흡연 학생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관리가 힘들고 많은 에너지와 기술을 요구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김수경, 2017). 따라서 학교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담사는 능숙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금연에 대한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은 금연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된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END 교재와 동영상을 상담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END 교재는 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금연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END 교재의 단점을 보완한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Dalum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금

연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엇갈리고는 있으나 대체로 인지행동이론에 근거한 중재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새로운 금연프로그램 개발 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되 흡연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중재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토의 결과 현재 학교의 담당교사는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진행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교 담당자와의 협조나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장미란(2015)의 연구에서는 학교흡연예방교육의 문제점으로 학교의 업무 담당자를 위한 연수 교육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따라서 교육청은 금연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가 담긴 매뉴얼을 학교에 제공하여 학교 담당 교사에게 학교흡연예방 및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운영주체들 간의 소통과 상호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금연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원활한 금연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프로그램 시작 전 학교 금연사업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일관적으로 운영할 담당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교 담당 교사는 금연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흡연 학생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금연프로그램의 효과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김수경, 2017). 따라서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담당 교사의 이해를 높이고 흡연학생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는 금연프로그램은 참여 학생을 모집 시 대부분 흡연이 적발된 학생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아 흡연 학생들이 금연 동기가 미처 형성되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학교 기반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여 학생 모집 방법에도 변화

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금연프로그램 진행 중

진행자들은 각 차시별 금연 교육 및 상담 활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따라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학교는 금연프로그램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진행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 장소,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호기 시 일산화탄소 또는 소변 내 코티닌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흡연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검사는 학생의 흡연 여부를 적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금연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고 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를 통해 금연을 실천 또는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다시 금연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청과 같은 상위 교육기관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학교와 진행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활성화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교 교사들은 보건교사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금연프로그램 담당자로 적합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보건교사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기에는 다른 업무가 과중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김수경, 2017). 보건교사나 학생부장이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충실히 실시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보여주기 위주로 학교흡연예방사업이 운영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장미란, 2015). 따라서 교육청은 학교 금연교육 담당교사의 업무 과중을 경감시키기 위해 행정적인 절차를 간편하게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담당자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해야 것이다.

3. 금연프로그램 종료 후

본 연구의 초점집단토의 결과 현재 운영되는 금연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향후 금연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교육청, 학교, 상담사가 흡연 학생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는 일회성 행사 중심의 관리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호기 시 일산화탄소나 소변 내 코티닌 검사를 시행하여 학생의 흡연 및 금연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금연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거나 금연에 성공한 학생에게는 충분한 격려와 칭찬, 보상을 제공하는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여 금연에 성공한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흡연을 하는 다른 학생들의 금연 동기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금연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다면 지역사회 금연지원센터(병, 의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등 상위기관은 금연을 시도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금연프로그램은 참여 학생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지만 이들의 금연 실천 또는 성공 여부와 같은 프로그램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육청 등 상위 교육기관은 단기적인 계획이나 성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학생의 금연 성공률 등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담사는 학생들에게 금연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흡연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전문성을 스스로 개발, 평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자 성찰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초기 시행부터 최근까지 학교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교육사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적으로 고조된 금연 분위기를 타고 입시와 무관한 사업의 예산으로서는 상당한 금액이 각 학교에 배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의 흡연 문제는 오래 전부터 학교 보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학교흡연예방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건교육 시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학교흡연예방사업이 시행되면서부터 학교 내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현재 학교흡연예방사업의 문제 중 하나는 흡연학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만 추진하는 ‘기본형 학교’와 학교와 지역상황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심화형 학교’를 구분하고 있다. 이 중 흡연학생 관리 및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은 심화형 학교에서만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흡연예방 관련 사업에 비해 흡연 학생을 위한 금연 사업이 소홀히 운영될 가능성을 유발한다. 실제로 현재 학교의 흡연 학생 관리는 주로 외부 강사를 통한 금연교육, 보건소 의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외부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불확실성, 보건소 의뢰 후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중학교 보건교사로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맥락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현재 흡연 학생 관리 및 금연 교육 시행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학교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담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흡연 학생을 만나 초점집단토의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학교 교사의 입장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진행자의 입장에서 함께 학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초점집단토의 분석 결과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 학생들이 제기하는 학교 흡연학생 관리의 문제점은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이에 연구자는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 학생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학교 기반 금연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할 사항을 탐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입장을 반영하여 절충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학교 기반의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의 금연 사업을 운영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

본 연구는 학교 기반의 금연프로그램 운영 맥락을 탐색하고 그것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과 프로그램 진행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토의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참여에 따른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 기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흡연 학생 관리에 대해 주로 담당자의 입장을 탐색했던 기존의 연구에 비해 실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과 학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여자 중학생의 모집이 불가능하였고 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심층적인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서울시 내 68개 중·고등학교 중 5개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금연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과 진행자의 인식과 입장만을 탐색하여 본 금연프로그램의 운영맥락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학생과 진행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의뢰한 학교 담당 교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한 교육청 담당자의 입장까지 탐색하여 학교흡연예방사업의 한 영역인 흡연학생 관리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6 장 결론

청소년 금연과 관련된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흡연과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알아보고자 금연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진행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서울시 학교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진행자를 대상으로 초점 집단토의를 실시하여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학교 현장의 금연프로그램 운영 맥락과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교 기반 금연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 기반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이 흡연 학생의 금연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행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그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표준화된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교육 대상자인 흡연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자발성과 금연 동기를 고려하여 적용해야 하며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자가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진행자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도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학교 현장의 업무구조 상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 교사가 흡연 학생 교육을 직접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교육청 등 상위기관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진행자를 선발하여 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금연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학교는 흡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 학교, 진행자 등 금연프로그램

의 운영주체뿐만 아니라 청소년 금연에 도움을 주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프로그램의 시행부터 종료까지 전 운영 과정에서 평가를 시행하여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학교나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같은 중앙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진행자 소수를 대상으로 각각 한 번의 초점집단토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학교흡연예방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학교의 흡연 학생 관리에 대한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현장의 프로그램 진행자 및 참여 학생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학교 기반의 금연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담당 교사, 교육청을 비롯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같은 중앙 부처의 입장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교흡연예방사업의 흡연학생 관리에 대한 교육 현장의 역할과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이주, & 김효신. (2005). 남자고등학생들의 흡연 영향 요인 분석. *소비문화연구*, 8(4), 12-142.
- 강정석, & 임사라. (2017). 청소년의 효과적인 흡연 예방 및 금연 활동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메타분석과 시장 세분화 기법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41(1), 75-107.
- 고숙자, & 정영호, 2013, 청소년 흡연으로 인한 질병부담-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98, 18-26.
- 교육부,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7).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김명식, & 권정혜. (2006). 흡연 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 및 행동주의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5(1), 1-23.
- 김수경. (2017). 서울시 학교흡연예방사업의 과정평가: RE-AIM framework의 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신아, & 한윤선. (2016). 지역사회 유해환경과 청소년의 음주흡연 경험과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보호 작용. *아동학회지*, 37(1), 37-48.
- 김영혜, 김경원, 강미옥, & 김남희. (2010).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 경험. *아동간호학회지*, 16(1), 10-19.
- 김원경. (2014). 청소년 성별에 따른 흡연경험 관련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1(2), 63-85.
- 김윤경, 박인혜, & 박정수. (2008).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효과의 메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8(2), 204-216.

- 김윤희, 강승희, 김현숙, & 강정찬. (2016). 금연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199-228.
- 김은수, & 정민수. (2017). 청소년의 담뱃갑 경고그림 지각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7(3), 568-590.
- 김정환, 박동주, 강병수, & 최형호. (2017). 가정 내 간접흡연이 청소년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4) 분석 결과. 대한가정의학회지, 7(2), 213-217.
- 김준호, & 박정선. (1995).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경, & 김균희. (2013). 중, 고등학생의 흡연여부 및 빈도의 결정 요인 분석. 청소년 문화포럼, 33, 88-119.
- 김지은, & 조병희. (2012).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57-87.
- 김현옥, & 전미숙. (2007). 청소년의 흡연, 음주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1(2), 217-229.
- 김혜경. (2010). 건강행동 변화를 위한 보건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금연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전략의 적용.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4), 177-188.
- 김혜경, 박지연, 권은주, 최승희, & 조한익. (2013). 금연/흡연예방 프로그램의 방법에 따른 효과성 평가: 최근 3년 간 국내학술지 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0(5), 61-77.
- 문병욱, & 신동준. (2008). 일반건강이론을 통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행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1), 33-60.

- 박선훈, 강주희, 전종설, & 오혜정. (2010). 흡연 청소년과 비흡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종단적 비교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2), 75-94.
- 박순길, 조증열, & 박영호. (2003). 또래비행동조, 신체적 성숙 및 스트레스가 중학생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473-486.
- 박순우. (2009). 학교흡연예방 활동의 활성화 방안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보건복지부. (2004).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17). 2017년 학교 흡연예방사업지침.
- 서경현, & 서정열. (2013). 흡연 청소년의 흡연 유형 및 흡연의존 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3), 567-578.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2016년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보고서.
- 소현진. (2012). 20대 흡연자 집단의 흡연행위 인지구조 탐색: 효과적인 금연캠페인 전략 개발을 위하여. 광고학연구, 23(4), 77-96.
- 송선희, 하은혜, & 송동호. (2002). 성인 남성의 흡연과 관련된 사회심리학적 변인: 종합병원 건강증진센터 내원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3), 447-461.
- 신성례, 신선화, & 이복근. (2014). 담배광고 목격경험과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청소년의 현재 흡연과 미래 흡연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5(1), 33-43.

- 신성례, 이충옥, & 정구철. (2013). 흡연 청소년을 위한 금연동기화 프로그램의 효과.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9(2), 130-139.
- 신성례, & 정구철. (2007).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특성이 금연 의지에 미치는 예측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21, 5-24.
- 신성례, 정구철, & 이복근. (2012). 청소년들의 담배광고 목격경험과 흡연수용도가 성인기 흡연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0), 1-22.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 흡연·음주의 저연령화 및 관련정책 개선방안, 이슈브리브, 7.
- 오미영. (2010). 담배회사의 전략적 사회 공헌 활동이 담배회사 이미지, 담배회사-공중 관계, 담배회사 태도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연구*, 14(1), 217-260.
- 윤순녕, 이윤정, 서은영, 김춘미, 고영, 장미경, & 현정희. (2008). 포커스 그룹 면담을 이용한 청소년 흡연의 습관화 과정.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4), 636-648.
- 이수연, & 전은명. (2001).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환경적 요인. *청소년학연구*, 8(1), 197-217.
- 이여진, 이군자, & 김영숙. (2011). 인구학적, 흡연 및 금연관련 요인이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4), 303-311.
- 이은현, 전기홍, 송미숙, 이순영, & 김지윤. (2003). 고등학생 흡연과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36(2), 131-136.
- 이한희. (2007).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현황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129, 6-21.

- 이현주, & 김덕진. (2017).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2016년) 활용. 한국웰니스학회지, 12(3), 423-431.
- 이혜진. (2017). 학교 흡연예방,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성: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휘곤, 황환식, 박훈기, & 이정권. (2005). 청소년 흡연과 가족기능의 관련성. 가정의학회지, 26, 138-144.
- 임소연, & 박민희. (2017). 흡연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금연시도 영향요인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622-633.
- 임은선. (2007). 5&6 금연프로그램의 청소년 금연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 임은선. (2010). 5&6 금연프로그램과 5일 교실 금연프로그램의 청소년 금연 효과.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2), 95-108.
- 장미란. (2015). 중학교에서 효과적인 흡연 예방교육의 탐색. 한국보건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자료집, 2015, 37-40.
- 전종설, & 송인선. (2010).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61-89.
- 전종설. (2014). 사회적 태도, 내적 요인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 27-50.
- 정미경. (2011). 청소년쉼터의 흡연청소년을 위한 금연프로그램의 효과.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 진혜민, &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

- 지연구, 14(2), 193-221.
- 최진명. (2009). 영화 속 흡연배우에 대한 감정이입이 청소년의 흡연기능 대리학습에 미치는 효과. 한국방송학보, 23(2), 526-566.
- 하지연, & 신성만. (2016). 청소년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2), 19-37.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2015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조사.
- 한수진, & 송낙길. (2015). 고등학생 흡연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경영연구, 2(2), 295-318.
- 한영란, 하은희, 박혜숙, & 이보은. (2005).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한 청소년의 금연동기 탐색.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2(1), 55-71.
- 함진선, 현명호, & 임영식. (2006). 스트레스, 중요타인의 흡연 및 흡연에 대한 신념이 청소년 흡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1(1), 191-207.
- 황성현. (2010). 부모와 친구요인이 청소년 음주, 흡연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7, 81-103.
- 황성현, & 이강훈. (2013).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4(4), 127-145.
- 황준현, & 박순우. (2014). 담배가격 인상 수준에 따른 흡연 청소년의 금연 의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7(2), 59-68.
- Abdullah A. M., & Ho, W. W. (2006). What Chinese adolescents think about quitting smoking: A qualitative study. Substance Use & Misuse, 41, 1735-1743.

- Aber, J. L., Gephart, M., Brooks-Gunn, J., & Connell, J. (1997). Development in context: Implications for studying neighborhood effects. In G. Duncan, J. Brooks-Gunn, & J. L. Aber (Eds.), *Neighborhood poverty: Context and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44-61). New York: Russell Sage.
- Abrantes, A. M., Lee, C. S., MacPherson, L., Strong, D. R., Borrelli, B., & Brown, R. A. (2009). Health risk behaviors in relation to making a smoking quit attempt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2(2), 142-149.
- Bahr, S. J., Marcos, A. C., & Maughan, S. L. (1995). Family, education and peer influences on the alcohol use of female and male adolesc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 457-469.
- Barkin, S. L., Smith, K. S., & Durant, R. H. (2002). Social skills and attitudes associated with substance use behavior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0, 448-454.
- Bonaguro, J. A., & Bonaguro, E. W. (2009). Self-concept, stress symptomatology and tobacco use. *Journal of School Health*, 57(2), 56-58.
- Burt RD, & Peterson AV. (1998). Smoking cessation among high school seniors. *Preventive Medicine*, 27, 319-327.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9). Achievements in Public Health, 1900-1999: Tobacco Use-United States, 1900-1999. *MMWR*, 48(43), 986-993.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Preventing Tobacco Use Among Youth and Young Adult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tlanta, GA: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ffice on Smoking and Health, 2012.

Cheong, Y. S. (2003). Smoking status and related factors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in 2002.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4, 894-903.

Choi, J. M. (2009). The effect of on-screen smoking on adolescent smoking initiation-vicarious functional learning about smoking via the empathy toward the smoking character.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23(2), 526-566.

Dalum, P., Schaalma, H., & Kok, G. (2012). The development of an adolescent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 an Intervention Mapping approach to planning. *Health Education Research*, 27(1), 172-181.

Edwards, C. A., Harris, W. C., Cook, D. R., Bedford, K. F., & Zuo, Y. (2004). Out of the smokescreen: Does an anti-smoking advertisement affect young women's perception of smoking in movies and their intention to smoke?. *Tobacco Control*. 13(3), 277-282.

Falkin, G. P., Fryer, C. S., & Mahadeo, M. (2007). Smoking cessation and stress among teenager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7(6), 812-823.

- Franz, M. J., Van Wormer, J. J., Crain, A. L., Boucher, J. L., Histon T., Caplan, W., & Pronk, N. P. (2007). Weight-loss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weight-loss clinical trials with a minimum 1-year follow-ups. *Journal of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07, 1755-1767.
- Garrison, M. M., Christakis, D. A., Ebel, B. E., Wiehe, S. E., & Rivara, F. P. (2003).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5(4), 364-367.
- Gilpin, E. A., White, M. M., Messer, K., & Pierce J. P. (2007). Receptivity to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s among young adolescents as a predictor of established smoking in young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8), 1489-1495.
- Glantz, S. A., & Jamieson, P. (2000). Attitudes Toward Secondhand Smoke, Smoking, and Quitting Among Young People. *Pediatrics*, 106(6). E82
- Hanewinkel, R., Isensee, B., Sargent J. D., & Morgenstern, M. (2011). Cigarette advertising and teen smoking initiation. *Pediatrics*, 127(2), 271-278.
- Hawkins, J. D., Catalano, R. F., & Miller, J. Y.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1), 64-105.
- Hersey, J. C. Khavjou, O., Strange, L. B., Atkinson, R. L., Blair, S. N., Campbell, S., & Britt, M. (2012). The efficacy and cost-effectiveness

- of a community weight management intervent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the health weight management demonstration. *Preventive Medicine*, 54, 42-59.
- Hiemstra, M., Otten, R., De Leeuw, R. N. H., Van Schayck, O. C. P., & Engels, R. C. M. E. (2011). The Changing Role of Self-Efficacy in Adolescent Smoking Initia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8(6), 597-603.
- Hornik, R., Jacobsohn, L., Orwin, R., Piesse, A., & Kalton, G. (2008). Effects of the National Youth Anti-Drug Media Campaign on you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12), 2229-2236.
- Hornik, R. C., & Ramirez, A. S. (2006). Racial/ethnic disparities and segmentation in communication campaign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9, 868-884.
- Huver, R. M., Engels, R. C., Van Breukelen, G., & De Vries, H. (2007).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smoking cognitions and behaviour. *Psychology and Health*, 22, 575-593.
- Hummel, A., Shelton, K. H., Heron, J., Moore, L., & Van den Bree, M. B. M. (2013). A systematic review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functioning, pubertal timing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Addiction*, 108(3), 487-496.
- Hwang, M. S., Yeagley, K. L., & Petosa, R. (2004). A meta-analysis of adolescent psychological smoking prevention programs published between 1978 and 1997 in the United States. *Health Education & Behavior*, 31(6), 702-719.

- Jimenez-Iglesias, A., Moreno, C., Rivera, F., & Gargia-Moya, I. (2013). The role of the family in promoting responsible substance use in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5). 585-602.
- Kang, L., & Kim, H. (2005). Risk and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cigarette smoking among Korean male high school students. *Research on Consumption and Culture*, 8, 121-142.
- Karcher, M., & Finn, L. (2005). How connectedness contributes to experimental smoking among rural youth: Developmental and ecological analyses.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6(1), 25-36.
- Ko, J. J. (1992). The influence of Knowledge at smoking and attitude of smoking on smok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0, 37-49.
- Kostova, D. (2013). A (nearly) global look at the dynamics of youth smoking initiation and cessation: the role of cigarette prices. *Applied Economics*, 45(28), 3948-3951.
- Kotteke, T. E., Battista, R. N., Defriese, G. H., & Brekke, M. L. (1988). Attributes of successful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s in medical practice. A meta-analysis of 39 controlled trial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59, 2883-2889.
- Kristina, S. A., Thavomcharoensap, M., Pongcharoensuk, P. & Prabandari, Y. S. (2007). Impact of smoking cessation training for community pharmacists in Indonesia.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16, 3329-3343.

- Krueger, R. A., & Casey, M. A. (2014).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Sage Publications.
- Kuntsche, E., Rehm, J., & Gmel, G. (2005). Characteristics of binge drinkers in Europe. *Social Science & Medicine*, 59(1), 113-127.
- Lee, E. (1995). Relation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to depression and anxie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 Leonardi-Bee, J., Jere, M. L., & Britton, J. (2011). Exposure to parental and sibling smoking and the risk of smoking uptake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Thorax*, 66, 847-855.
- Locke, E. A. (1968). Toward a theory of task motivation and incentiv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 157-189.
- Lovato, C. Y., Zeisser, C., Campbell, H. S., Watts, A. W., Halpin, P., Thompson, M., Eyles, J., Adlaf, E., & Brown, S. (2010). Adolescent smoking: Effect of school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9(6), 507-514.
- Manson, W. A. & Windle, M. (2001). Family, religious, school and peer influence on adolescent alcohol us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 44-53.
- Maxwell, K. A. (2002). Friends: the role of peer influence across adolescent risk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4), 267-277.

- Milkovich, G. T., & Boudreau, J. W. (1997). *Personnel/human resource management: A diagnostic approach* 8th edition. Homewood, IL: Richard Irwin, Inc.
- Morgan, D. L., & Krueger, R. A. (1993). When to use focus groups and why. In D. L. Morgan (Ed). *Successful focus groups' advancing the state of the art* (pp.3-19). Newbury Park, CA: Sage.
- Nichter, M., Vuckovic, N., Quintero, G., & Ritenbaugh, C. (1997). Smoking experimentation and initiation among adolescent girl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inding. *Tobacco Control*, 6, 285-295.
- Narvig, G., Albrektsen, G., Andersen, N., & Qvarnstrom, V. (1999). School related psychosomatic symptom among school adolescent. *Journal of School Health*, 69(91), 362-368.
- O'Loughlin, J., Karp, I., Koulis, T., Paradis, G., & DiFranza, J. (2009). Determinants of First Puff and Daily Cigarette Smoking in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70(5), 585-597.
- Peto, R., Darby, S., Deo, H., Silcocks, P., Whitley, E., & Doll, R. (2000). Smoking, smoking cessation, and lung cancer in the UK since 1950: combination of national statistics with two case-control studies. *BMJ*, 321(7257), 323-329.
- Pointek, D., Buehler, A., Rudolph, U., Metz, K., Kroeger, D., Gradl, S., Floeter, S., & Donath, D. (2008). Social contexts in adolescent smoking: does school policy matter?. *Health Education Research*, 23(6), 102-1038.
- Reimers, T. M., Pomrehn, P. R., Becker, S. L., & Lauer, R. M. (1990).

Risk factors for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American Journal of diseases of children*, 144(1), 1265-1272.

Rensick, M., Harris, K., & Shew, M. (1997). Protecting adolescent from Harm.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8(10), 823-832.

Sandelowski, M. (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27-37.

Shin, S. R. (1997). The effect of smoking cessation education for self efficacy promotion in high 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Seoul.

Stanton, A., & Grimshaw, G. (2013). Tobacco cessation intervention for young peopl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13, Issue 8. Art. No.: CD003289. DOI: 10.1002/14651858.CD003289.pub5.

Sussman, S., Dent, C. W., & Lichtman, K. L. (2001). Project EX outcomes of a teen smoking cessation program. *Addictive Behaviors*, 26, 425-438.

Sussman, S., Dent, C. W., Burton, D., Stacy, A. W., & Flay, B. R. (1995). Developing school-based tobacco use prevention and cessation programs. Thousand Oaks(CA): Sage.

Sussman, S., Sun, P., & Dent, C. W. (2006). A meta-analysis of teen cigarette smoking cessation. *Health Psychology*, 25(5), 549-557.

Tak, J. Y. (2002). A study on the effects of magazine cigarette advertising on consumers' social behaviors. *Advertising Research*,

57, 195-222.

Thomas, R. E., McLellan, J. & Perera, R. (2013). School-based programme for preventing smoking.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13, Issue 4. Art. No.: CD001293. DOI: 10.1002/14651858.CD001293.pub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2010 global progres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Yang, K. A. (2003). The effects of the input of cognitive-behavioral non-smoking program on the girl's high school smok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Zhu S.H., Sun J., Billings S.C., Choi W.S., & Malarcher A. (1999). Predictors of smoking cessation in U.S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6, 202-207.

Abstract

Exploring the Context and Influence of the Adolescent Smoking Cessation Program in Middle and High School in Seoul

Jung Yeon Cho
Public Health Science,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olescent smoking is more lethal to health than adult smoking and leads to adult smoking,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becoming a lifetime smoker and heavy smoker.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total smoking rate and reduce the harm caused by smoking,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ervene in adolescence to prevent smoking and quit smoking.

Since 2015, Korea has been providing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tobacco prevention of the adolescent and managing smoking students by operating the Smoking Prevention Project in all schools. However, various problems are emerging in the management of smoking students and the administration of smoking cessation programs at the school si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a school-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educational field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and to reduce the smoking rate of adolesc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text of the adolescent smoking cessation program in schools and the effect of the program on the students and to suggest the effective management method of school-based adolescent smoking cessation programs. For the present study 6 focus group discussions were conducted for 19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chool Counseling Program oper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4 facilitators of this program. Thematic analysis was performed on all focus groups.

The results of the study identified 7 themes of behavior and attitude of smoking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nd the context and the influence of the program participation. 1)Changes in the smoking experience over time, 2)Past experiences of smoking cessation, 3)Willingness to participate, 4)Informative program 5)Ineffective smoking cessation program, 6)Ease of participation, 7)Need for ongoing management of the smoking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identified 5 themes of facilitator's perception of the program's operation. 1)The initial relationship with participating students, 2)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ng students, 3)Autonomy in program content composition 4)The absence of systematic management of smoking student in schools, 5)Current smoking cessation program that needs improve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moking students and facilitators are aware of the involuntary participation process of the school-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 the uncertainty about the effect of smoking cessation, and problems of managing smoking student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effectively operate the school-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 in the future, the

administrators of the office of education, schools, and facilitators must faithfully carry out their respective role from the preparation to the end of the program.

Through this study, the opinions of students who are the beneficiaries of the Smoking Prevention Project could be collected. The effective management methods of school-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 that this study suggests would be used as a basic data to develop policies for smoking cessation management and education in the future, as well as to provide guidance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teachers in charge of the Smoking Prevention Project.

.....

keywords : school-based, smoking cessation,
adolescent, focus group discussion

Student Number : 2015-24046